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廣九線一帶를包圍 殘敵을完全掃蕩

英國租借地境까지肉薄

【廣東二十六日發同盟】南支派遣軍報道部午後九時發表＝我東江南岸地區掃蕩部隊는 東莞、石龍、惠州、淡水의線에서 掃蕩準備를 完了하고 二十三日早朝 行動을開始하야 途中二百乃至八百의 敵에對하야 大小十四回나 攻擊을反復、包圍圈을 縮少하면서 二十五日黃田、天堂圍、陳塘의線에 達하자 敵一部及避難民은 多數장크에依하야 英吉利租借地方面으로 逃入하얏다 二十六日正午 英吉利租借地深圳關三키로附近에 肉薄하자 深圳關南側에잇던敵은 英吉利租借地內로 遁走하고 그砲兵은 深圳關東南方國境線에서 頑强히抵抗하엿스나 我軍은 英吉利租借地境인때문에 全然發砲치안코 肉薄 또肉薄하야 同日午後四時半 마침내 租借地境에進出하엿다

【廣東二十六日發同盟】去二十三日부터 一齊히 開始된 東江南岸廣九線沿線을 中心한 殘敵大討伐은 東莞을 突破하고 虎門北方을 南下한 竹下部隊를右翼으로하고 廣九線西側에 沿하야 進擊하야 梅林을 陷落한 長谷川部隊及 廣九線東側에沿하야 牙山、君子營、樟木頭를 擊破한 川崎部隊는 更히 最右翼惠州方面으로부터 淡水를 經하야 平山墟에 進出한 乾部隊와 一大包圍陣을 形成하야 所在의敵을 擊破하면서 着着包圍線을 縮少하야 殘敵을 南方으로 潰走시키는一方 海軍部隊의 水路에서의協力과함께 二十六日 豫定과가티全地域의 掃蕩을完了하엿다 이리하야 敵은 或은 殲滅되고 或은 支離滅裂이되여 이제는 全혀 戰鬪力을잃케되엿다 彼等은 各處에서 必死의 蠢動을하고잇스므로 軍은 此等殘敵에 對하야 掃蕩을弛緩치안코 徹底的으로 進擊하고잇고 更히 我陸의 荒鷲도 地上部隊와 協力하야 二十六日도 早朝부터 出動하야 到處의 殘敵에 爆擊을加한外에 一部는 敵이 紅海灣附近에서 集結하고잇는것을 發見, 어지러히爆擊하고 更히 海豐에도 飛行하야 撤退中인 敗敵을 徹底的으로 爆擊하엿다

社說

鄕土訪問飛行計畫의 挫折
航空界는 더욱 奮起하라

一

十九世紀末頃에 蘭步를 發하여가지고 二十世紀上半에 있어서 人類歷史上에 驚異的成長을 遂한것은 곳 航空術이다。人間이 空中에 飛翔한다는것은 古代支那人의 小說的幻想이나 仙道的迷夢以外에는 像想도못하던것이다 萬一 옛사람이 今日의 巧妙奮絶한 空中航行을 본다면 驚了一際, 罔知所措의 態度를 뵈일것이다。그러나 科學의 發達과 航空의 進步는 四十七時間으로써 伯林과 東京間을 連絡할수잇게되엿으니 이어찌 놀나운 事實이 아니고 무엇이냐? 航空術은 近代의 立體戰爭에만 必要한것이 아니라 人類交通上 또는 人類文化增進上 絶對로 必要한것이라고 아니할수가 업다 實로 飛行機의 製作及其他設備는 近代科學의 精髓를 모아노흔것이요 航空術은 人類文化의 最尖端을 돌코 나가는것이 아니라고 할수가 업다。

二

우리 朝鮮青年中에도 일즉부터 이航空術에 關하야 大志를 품코 挺身硏鑽을 繼續한사람이 한둘이아니다 그리하야 安昌男君을 爲始하야 數多의 航空士를 航空界에 보내게되엿다 그러나 今番에 崔鎭祚飛行士가 榮譽의 鄕土訪問飛行을 하다가不幸히도,『에어·코멧』을 맛나 壯志가 達成되기前에 中途挫折을 當한것은 實로 同君과 同君의 家庭을 爲하야 痛恨事요 悲慘事 일뿐만아니라 航空界의 氣焰을 爲하야 莫大한 損失이요 愛惜한 일이라고 아니 할수가업다 더욱히 今番과 가티 鄕土訪問中 空中事故로 犧牲되기는 朝鮮의 女鳥人으로 名聲이 籍籍하던 故朴敬元女史가잇다。그러므로 鄕土訪問飛行中 空中事故로 犧牲을 보기는 朝鮮航空史上에 잇서서 이번이 두번재이다 이와가튼 不慮不測의 事故를 거듭하게 되는것은 實로 朝鮮人航空界와 밋航空思想의 發展에 對한 한幅의 暗影이 되지나 아니할가 그윽히 憂慮되는바이다。

三

元來 朝鮮人航空士는 그數도 몃사람이 되지못하야 航空界에 貢獻은 姑捨하고 그存在도 稀微한것이다。軍國多事의 秋에잇서서 航空術로도 國民된義務를 하지아니하면 아니될터인데 이와가튼 現狀에 잇는것은 實로 부끄러운일이다 더욱히 今番의 事故가 發生된것은 事故그自體가 損失인것은 勿論이어니와 發展하려고하는 航空思想 特히航空志望 青年層의 意氣를 沮喪케하는바가 잇다면 안될일이다。朝鮮의 青少年 特히 航空術習得志望의 靑少年은 이와가튼事故가 잇다고 하야서 多少라도 畏縮과 忌避가 잇서서는 到底히 아니될일이다 또 靑少年의父兄된사람으로도 이런 事故가잇다고하여서 子侄의 志望과意氣를 沮喪케하여서는 아니된다 現代人은 모름지기 百折不屈의 勇氣와 煉成丹精의 熱意를 가지고 외갓困難을 克服하여 나가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듯는바에 依하면 歐洲에서의 空中事故率은 汽車事故率보다도 오히려 적다고한다。이것이 참이라면 航空은 冒險이아니요 極히 安全한것이 아닌가 絶對로 航空術의 習得에對하야 忌避나畏縮이잇서서는 아니될것이다。

兵站線總崩壞로 敵抗戰陣容에大打擊

【南京二十七日發同盟】蔣介石은 國共兩黨의反目에따라 各將領間의軋轢 武漢失陷後의 兵站線崩壞等으로 第四期抗戰戰線整備에 自家苦惱하고잇는데다가 長沙에잇서서의 黃埔系分子의 反共的 放火事件發生은 此等情勢를惡化에 拍車를 加하게되엿스므로 蔣介石은 事態를 收拾하기爲하야 二十四日桂林會議에앞서서 衡陽에서軍事委員會를 召集하엿든바 當地에達한確實한 消息에依하면 이會議에는 陳誠 [illegible] 白崇禧 湯恩伯을 비롯하야 共產黨側에서도 周恩來等 代表者가 出席하야 長沙事件의責任 國共關係의 調整 兵力의補充等에 對하야 討議한後 軍規肅正 兵站施設의再建 各軍連絡問題의 再建等 軍規肅正과 兵站線再建問題는 가장 重要한 議題로서 盛히 討論되엿섯는데 兵站線問題에 對하여는 武漢失陷後의 今日에잇서서 그中樞機關을 再建함은 不可能한바로 分散을 不得已하게되엿다는 結論에達하엿다고傳한다 이兵站線崩壞는 實로蔣介石의 抗日戰陣容에 對하야 致命的破綻을 招來하는것으로서 軍規弛緩으로 말미아믄民心의 離反과함께今後의 推移는 重大關心을가지게한다

섯기때문에 全然 알지못하엿다 마침 저녁때에 日本軍이 攻擊해와서 砲彈이 비오듯하므로 모두 唐慌하엿다 지난 五月以來 我等은 給料한푼도 밧지못하고 食糧도 쌀을조금 바들뿐으로서 不得已 農民의 食糧을 徵發하엿다

麻城地區의 殘敵을殲滅

【漢口二十六日發同盟】麻城西方地區에서 最近敗敵이 蠢動함으로 我軍에서는 二十六日 그掃蕩戰을敢行한 結果 敵을 거의殲滅시켯다 即渡邊部隊는 同日午前 八墨灣 宋埠西南方 二十키로地區에잇는 第一二六師의 敗殘兵及遊擊隊를 奇襲殲滅하고 또他部隊는 同日夏店의 西南十五키로附近에서 共產軍을擊滅大打擊을주고 外에馬鞍山에잇는 共產軍本據를 覆滅하엿다

廬山在留外人 救出에便宜提供

【九江二十六日發同盟】廬山山頂의 外人救出問題에 關하야 英艦 콕치레니號 코쓰艦長及 米艦모노카시스號 코스크라艦長은 二十六日午後二時 九江領事館에서 小林副領事 軍司令部淸水少尉와 會見 約二時間餘에 亘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다 먼저兩艦長은 英米側의 廬山將校의 報告에 依하면 下山希望者 米國人在住者 二十五名中十名 英國人七十二名中十四名 또 瑞西人女子一名 商人一名 獨逸人女子一名合計 二十七名에達하는데 廬山의 支那軍은 中央에서의 指令이업스면 下山시켜지안켓다고 主張하고잇다하므로 英米側에서는 英國民政府側의 諒解를 求하야 下山을 促進할方針인旨를 陳述하엿다 이에對하야 我方에서는 언제든지 下山者에게 便宜를與할 用意가잇는旨를答하고 更히
一、下山當日은 荷物도잇슬테니 쿠리를雇傭하야 支那側步哨線까지出迎하겟다
一、그리고 蓮花洞에서 부터는 自動車로 九江까지 運送하고 다시 上海에 歸還을 希望하는者에 對하여는 特別한 便宜를 提供하겟다고 附言하엿다 이런友誼的 援助를 約束하엿스므로 英米側은 기괴感謝의뜻을 表하고 同六時 歸還하얏다 그리고 二十七人의下山時期는 結局 十二月五日부터 十日까지의 사이로 될豫想이다

山東西北部의 共產匪를殲滅

【濟南二十六日發同盟】山東省西北部를 掃蕩中이던 本田部隊는 共產匪首 范築先의根據 東昌을 急襲하야 元兇范을 죽이고 遺棄死體千餘의 大打擊을 주엇는데 그時捕虜된 主計中佐五子耕武術敎師楊子等이 二十五日〇〇本部에 護送되엿다 彼等은 匪賊의內容에 關하야 如左히말하엿다

今番討伐은 넘우나 突然히잇

佛罷業去益擴大로 政府强硬態度表示

北佛地區軍隊에待機命令

【巴里二十六日發同盟】佛政府는 罷業을彈壓하고저 强硬對策을決定하엿는데 北部地區에서는 軍隊에게 待機命令을내렷다 罷業中心地인 바렌신느地方은 이미 조세프·우메이크將軍을 指揮者로서 罷業勞働者를 整理키로되엿다 政府의强硬態度에 不拘코 勞働者의 怠業戰術 街頭示威等은 依然히 그치지안코잇스며 덩케르큐金屬鑛業勞働者도 二十八日부터 罷業을開始할것을 決議하엿다

【巴里二十六日發同盟】레이노藏相의 財政經濟再建法에 反對하는 罷業의 波紋은 北佛의바렌쉔느地方노르縣全地區巴里市附近中佛낭트마르세이유等各地에 波及하야 參加人員이 二十萬을超過하는 狀態이다 달라디에首相은 廿五日以來 노모지勞働相 도마레土木相 라몬드鑛業相 巴里警區衛戌司令프르將軍 國防次官도간將軍等關係首腦를 召集協議한結果 北佛노르縣의 勞働者에 對한 强制勞働條件을 包含한 强硬方針을決定 勞働相으로하여금 實施키로決定하고 二十六日朝刊紙上에 이를發表하엿다 그리고 勞働總同盟指導下에 全國的總罷業이 行하게될 三十日에는 交通公共事業에 支障이업게하도록 萬全을期하라는 指令을各官廳에發하엿다 政府의 罷業彈壓策에對하여는 急進社會黨中央派左翼派는 이를支援하고 左翼의社會黨、共產黨方面에서는 이를反對하고잇다 그리고 社會黨黨首블룸氏는 二十六日黨機關紙上에 달라디에首相에게 內閣總辭職勸告狀을 揭載하야『달라디에首相은 辭職지안흐면 革命의 危機에 直面케될것이다』라고 述하엿다

(寫眞은 달라디에佛首相)

佛藏相라디오로 勞働者側自重要望

【巴里二十六日發同盟】北佛바렌쉔느金屬勞働者罷業에 端을發한 佛蘭西勞働不安은 忽然全佛各地에 波及하야 深刻한 社會不安을 醸成하고잇는바 勞働者側의 非難攻擊의 標的이되여잇는 레이노藏相은 二十六日라디오를通하야 全國에 呼訴하야 財政經濟再建案은 勞働者에對한 攻擊을 意味하는것이아닌 所以를强調하는同時에 勞働者側의 自重을 要望하엿다

罷業惡化에對備 公共事業公用徵收決定

【巴里二十六日發同盟】佛國의勞働不安은 勞働總同盟의總罷業決行決議及이에呼應한 달라디에內閣總辭職要求에依하야 자못險惡化의 一路를걷고잇는데 政府로서는 和協解決의 最後希望을버리지안코 二十六日에 레이노藏相이 라디오를通하야 全國에呼訴하야 勞働者의 自重을要望하고 更히二十七日에는 달라디에首相도 마이크아페서서 總罷業을 中止하도록 最後의呼訴를斷行할豫定인데 一方事態에 最惡化한境遇에 備하야 罷業對策에 萬全을期하고잇스며 二十六日政府는 마침내 鐵道電氣瓦斯水道郵便等公共事業은 全部公用徵收하기로되엿다

쳐코側讓步로 波蘭國境問題完全解決

【왈소二十六日發同盟】國境찻카의 波蘭、쳐코兩國紛爭에 憤激한 波蘭은 마침내 찻카市全部를占領하엿다 그러고 쳐코政府에抗議한結果 其他二地方도 二十七日까지는 波蘭에 依하야 接收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波쳐兩國間의 領土割讓은 全部解決을보앗다

南阿國防相 伊太利訪問

【羅馬二十六日發同盟】南阿聯邦國防相피로氏는 獨逸訪問을마치고 二十七日夜 羅馬에到着 뭇솔리니首相 챠노外相과 會見할豫定인바 羅馬消息通에 依하면 피로國防相은 伊太利와 南阿聯邦과의 通商條約締結豫備工作을 行하는外에 獨逸植民地返還問題에 關하야 事務的意見을 交換할模樣으로 注目된다

쳐코割讓地帶 주地方占領完了 獨政府發表

【伯林二十五日發同盟】獨逸의쳐코割讓地帶占領은 十月一日以來 順次로 進行되고잇던바 二十五日 獨逸軍隊의 北모라비아地方接收로써 玆에 無事完了되엿는바 二十五日 獨逸政府로부터 公式發表가 잇섯다

今日本紙八面

英紙의對日論調 俄然强硬化氣勢

쳄首相의樂觀論을非難

【倫敦二十六日發同盟】英吉利政界에는 漢口陷落後 支那事變이 의終局에達하엿다는 見解下에서 暫時戰況의 推移를 靜觀하고잇던바 支那에關한 日英兩國間의 懸案도 容易히 解決되지안코잇으며 카ー駐支大使가 打診한 結果 蔣介石은 依然對日抵抗을繼續할決意가잇는것이 判明되엿스므로 이지음 全面的으로 態度가硬化하야 무슨 手段으로 揚子江航行其他 懸案을 解決할려고 企圖하고잇다 英吉利外務當局에서는 揚子江問題에 對하야 여러가지 例證을드러 帝國政府回答에 不滿인뜻을 表明하고잇다 一方二十六日만체스타·가ー듸안紙는 支那事變에 關한 英吉利新聞界의 沈默을 깨트려 近衛首相의 聲明及 帝國對米回答을 引用하고 日本政府는 結局九個國條約을 無視하고 支那의 門戶를 閉鎖하려하고잇다 쳄벌린首相의 樂觀論은 不當하다고 强調하고잇다 그리고 巴里會談에서도 對支權益擁護에對하야 居中調停에 關한 英吉利政府의 豫備工作이 無爲에 歸하엿스므로 全體的으로 空氣가逆轉하야 만체스타·가ー디안紙를 先頭로 新聞界의 論調는 惡化되지나 안흘가고 念慮된다

八面鋒

波蘭政府 武力으로 쳐코領 찻카市를 占領。

◇

사람도 한번 權威를 일흐면 온갓 작것이 다 弄絡을 하나니,

◇

요다음엔 匈牙利、羅馬尼等이 덤벼들지 안흘지 몰라。

◇

總督府에도 明年度엔 企劃部 厚生局을 두어 物資調整 勞働問題等을 取扱하리라고。

◇

機構는 擴張되고 人員은만히 쓰이는데 明年卒業生이 果然 얼마나 採用되나?

◇

鄕土訪問飛行中의 崔君 飛行機에서 휘둘려 떨어저 海中에 沈沒 溺死。

◇

從來에 못보던 珍事故。어찌 목숨을 잡아 대다는데 그런 慘變이 생겻노?

◇

벌써 飛行士로 犧牲된 이中 徐日甫、安昌男、朴敬元諸氏를 너어 네번째。

◇

犧牲업는 發達은 업다니 이貴重한 犧牲으로써 우리 飛行界가 一段의 進步가 잇다면 울고 참을일。

明年度豫算總額 八十億圓突破乎

004170

【東京電電同盟】明年度一般會計豫算은 三十日臨時閣議에 附議決定코저 方今 大藏省과各省과의 間에復活要求를 圍繞하고 最後折衝이 進行되고잇는바 大藏省이 軍需給調節見地에 重點을두고 査定을行하려는데 對하야 各省은 救護施設災害對策等 緊要性을 强調하야 될수잇는限 多額의 經費를 計上코저하고잇스므로 兩者의 折衝은 閣議前日까지 頻繁히行해질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今日까지의 折衝結果 明年度豫算에 計上되기로된主要各省經費를 各省別로보면 陸軍의 國防計畫 海軍의 第三次補充計畫等의 繼續費를 비롯하야

▲外務省
一、在外公館新設費
▲內務省
一、河川港灣改修費
一、砂防計畫費
一、道路改良費
一、地方財政補給金
一、經濟警察機構整備費
▲大藏省
一、滿鐵株式拂込金
一、公債利拂金
▲商工省
一、無水알콜工場新設費
一、輸出振興費
一、生產力擴充主要經費
一、主要鑛物增產計畫費
一、帝燃會社拂込金
一、臨時轉業對策費
▲農林省
一、臨時農業計畫施設費
一、馬政計畫費
一、農村經濟更生施設費
一、民有林及造林助成費
一、農村厚生施設費
一、產業獎勵費
▲遞信省
一、航空中央機關設置費
一、航路補助費
一、恩給增
▲司法省
一、刑務所軍需作業施設費
▲文部省
一、青年學校義務敎育制實施費
一、軍需工業技術員養成費
一、工業學校職員生徒增員費
▲拓務省
一、滿洲移民費
一、滿拓株式拂込金
▲厚生省
一、軍事扶助費
一、臨時軍事援護費
一、軍人援護事業助成費
一、臨時農業對策費

等으로 事變下第三年度長期建設段階에 即應하려는 各般의施設을包含하야 그豫算總額도 三十七億內外에達할模樣으로 참으로 未曾有한厖大豫算이될것이다 그리고 戰費에 要하는 臨時軍事費豫算은 來月陸海兩省으로부터 要求額이提出될터인데 長期駐兵及消耗資材整備補充次 그總額도 아마今年度의 四十八億五千萬圓을 突破할것으로보이므로 이를 一般會計豫算에 加算할時는 八十億을 超越한巨額에 達할것으로보인다

日曜氣配

◇期米 政府의買著成績은大體로 好成績을示하엿스나 應募漏落도 相當히잇슬모양이어서 氣配는 十錢低이며 日曜產地態度가注目되어잇다

◇株式 取引所株는惡觀되나 其他는 增稅懸念으로 下押되고 氣配採算的으로 不勢이엇다

大新 ?20 鐘紡 1300
東新 1300 滿業 ?30

人事·集會

▲篠田李王職長官 滿東中이던바 二十八日午後三時十分 京城驛着歸任豫定

▲木村正義氏(內務參與官)二十七日午後三時旅客機로京城飛行場着入京豫定

在哈英系兩中學에 滿洲國政府閉鎖命令

【新京二十六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二十六日 在哈英文中學、大英中學의 二校에 閉鎖命令을 發하엿다 이는 일즉부터 滿洲國의 新學制에 따르지안코 滿洲國敎育方針에 反하야 滿洲國을 記入하지안흔 地圖敎材를 採用하는等 그대로 放任할時는 莫大한 禍根을 남기게될터이므로 外務局은 英國領事館에 對하야 再三그反省을 求하엿스나 應치안하야 드듸여 閉鎖를 命하게된것이다

梁鴻志氏 南京歸任

【南京二十六日發同盟】去十六日以來 日本訪問旅行을 마친 維新政府行政院長 梁鴻志氏는 二十六日午前十時三十分 上海驛發 午後十時十分 官民出迎裡에 南京飛行場에 到着하엿다

世界週史

日獨文化協定調印

얼마前부터 日獨兩國間에 兩國民族의文化提携增進을 目的으로 交涉中이던 日獨文化協定은 防共協定成立二週年記念日인 二十五日午前九時半 外相官邸에서 有田外相과 오트駐日獨大使間에 調印을完了하엿는데 그條文은다음과갓다

第一條 締約國은 그文化關係를 堅實한基礎우에樹立하도록 努力하야서로가장緊密한協力을함

第二條 締約國은 前條의目的을 達成키爲하야 學術、美術、音樂、文學、映畫、無線放送、青少年運動、運動競技方面에잇서서 兩國의 文化關係를組織的으로 增進함

第三條 前條의規定實施에必要한 細目은 締約國의權限잇는官憲이 協議決定함

第四條 本協定은署名日부터 實施하고 締約國의一方은十二個月의豫告로써 本協定을廢棄할수잇다

佛國罷業擴大

레이노佛新藏相은 財政經濟再建案으로 勞働時間延長案을 提出하엿는데 이에反對하야 北佛蘭西 바랑센느地方 金屬工業勞働者는 二十三日부터 一齊히罷業을 開始하엿는데 罷業은 漸漸 全國化할 形勢임으로 二十五日 달라디에首相은 移動警官隊 二萬을 動員하야 罷業中心地帶인 巴里近郊及 北佛蘭西地方의 警備及 治安維持에 當케하엿다 이미 罷業參加人員이 十萬以上에 達함으로 달라디에首相은 戒嚴令을 施行할 決意를 하고 잇는모양인데 佛國勞働總同盟에서는 政府의 全權委任法令에 反對하기 爲하야 十二月三十日을 期하야 全國各產業은 二十四時間의 總罷業을 하라고 決議하고 即時 五百萬會員을 擁하는 全國加盟團體에 右를通達하엿다

波蘭, 쳐코領찻카占據

波蘭軍隊는 十一月二十五日午前 波蘭과 쳐코의國境을너머들어가서 獨·波·쳐協定에따라 波蘭에 割讓키로된 쳐코領찻카地方을武力으로 占領하는同時에 波蘭政府는 뮨헨協定後 쳐코가 波蘭에게 割讓키로된 地域에 對하야 新國境을 劃定코저 設置한 波쳐國境劃定委員會로부터 脫退할것을 聲明하엿다 그理由는 二十四日 國境調查中이던 波蘭委員이 地方民多數에게 暴行을 加한데 憤激한것이라고傳한다

英佛會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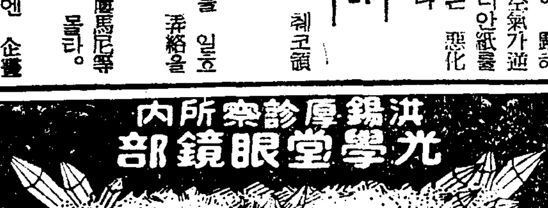
英佛會談은 全歐洲의注目裡에 二十四日午前부터 佛國外務省에서 열리엇다 쳄벌린英首相、할리팍스英外相과 달라디에佛首相、보네佛外相等兩國代表가 한자리에 모히여 午後까지 會談을繼續하엿는데 會談內容은 發表되지안흠으로 알수업스나 軍事協力、對獨問題를 비롯하야 西班牙問題、極東問題等이 論議되엿슬것으로 觀測된다

獨外相訪佛說

英獨共同宣言과同一한 佛獨共同宣言에調印하기爲하야 리벤트롭獨外相은 今月末頃 巴里를訪問하기로되엿다한다 右宣言은 佛獨兩國間의友好關係를强調하고 現在의兩國國境線을確認하야 紛爭이생길境遇에는 互相協議解決키로決定하려는것으로보인다

專賣特許金펜附 品質保險證付 和信萬年筆 和信本支店·各地連鎖店販賣

洪錫厚診療所內 光學堂眼鏡部 京城鍾路青年會館下層 電光二二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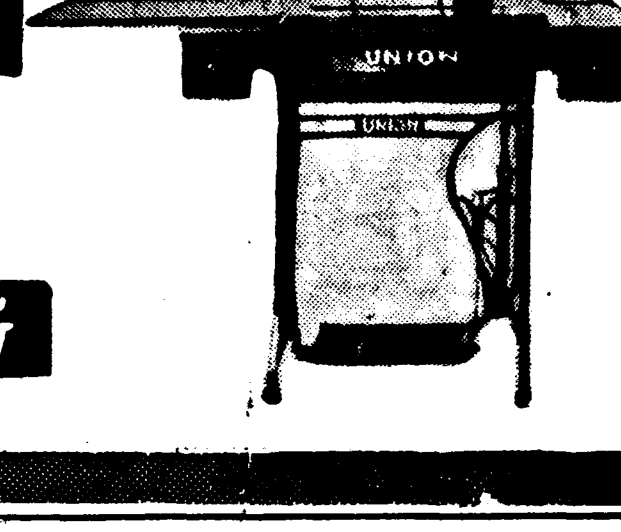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秋節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소

補陰陽秘方仙藥 精力丸 京城西大門町 圓岩合資會社 試用一割 三圓 十圓

朴丹馬 林藥面

現下唯一의舶來品 世界裁縫界大霸王
ユニオン裁縫機
(萬國標準型)
特長
1 前進後退가自由自在
2 價格世界的壓倒廉價
3 品質何國ミシン을莫論하고 追從不許
月賦販賣
新設地方分店大募集
日本內地・臺灣・南樺太・南洋群島・及滿洲大都市에는總代理店을募集함
地方分店未設地에限하야 分店申込에應함・型錄規定書를進呈
直輸入元 ユニオン裁縫機直輸入 總配給元 三福合名會社
京城鍾路四街里 電話(光)一六四八番 振替京城一五〇八一
取引銀行 第一銀行 漢城銀行



三割增徵原則踏襲
第二教育部豫算編成完了
齋洞、竹添、鞍山等學校는大改築
三淸、敦岩、大峴은新設

조선인 초등교육 제이차확충계획 제이년도를마지하는 경성부제이교육부(第二敎育部)예산은 동부회 상임의원회의 금년도학교시찰결과의 참고의견을 종합하야 요지음편성을 못내엿는데 물까등귀를 반영하야 금년도보다 오십만원이더만하저 총액이 백오십만원에 달한다

그재원으로는 증세난(增稅難) 기채난(起債難)때문에큰곤난을 겪것스나결국 십이년도에 결정한 호별세 매년증징 삼할의원측을 그대로 준용하야 더증세는하지안키로 결정하엿스므로 부과금(賦課金)수입으로는 칠십사만원을계상하엿고 수업료기타사용료 사십여만원 도비보조 삼십이만원 남어지 부족액중 약팔십만원은 기채하기로되엿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부(經常部) 백만원에 대하야 임시부(臨時部)에 백오십만원을 배정하야 기부와가지 삼청(三淸)돈암(敦岩)대현(大峴)의 세학교를 신설하는것을 비롯하야 종암(鍾岩)소학교를 안암정(安岩町)으로 이전하고 이전현재의지가 편벽하야 통학하기곤난한관계로) 하며 재동(齋洞)죽첨(竹添)안산(鞍山)각학교를 대개축하는등 학교시설을 정비확충하는데 힘을 쓰는것은비상시예산편성으로 주목할일로서 명년삼월의 예산부회에서도 찬의로서 마저질것으로기대된다

陸軍에獻金
三千萬圓突破

【東京電話同盟】작년칠월사변발발이래 일년동안 육군성에 들어온 총후국민의 열성을 보히는 헌금은 이십오일까지 누게를보면 다음과갓다

國防獻金 三〇〇六一、四四〇圓一七錢
恤兵金 一三、六二三、一七七圓五七錢
慰問袋 一二、六二一、一一七個
銀紙 八、五八九、三三七匁
軍事技術獎勵金 三、〇一四、六一八圓六二錢

품솜獻納

서북지전선에 활약하는 장병을위문하기위하야 평안북도 양잠업자일동은 각기 고치다섯개혹은 열개식을 모아서 품솜으로 맨드러 외투에 넛는 품솜 칠십만근을 수일전에 조선군애국부에 헌납하엿다한다

京城軍援聯盟에 金氏三千圓寄附

경성 방직회사(京紡)사장김년수(金秊洙)씨는 어십륙일 금삼천원을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기부하엿다

防共防諜標語 募集審議

조선방공협회(防共協會)에서는 방공방첩(防共防諜)사상을 선전하기위하야 총독부경무국안에잇는 ...

五十餘名이 "餅中毒"
十餘名重篤狀態
載寧新煥浦의異變

【平南支社電話】강서군내차면도사리(江西郡內車面道寺里)에사는 양중락(梁仲洛)은이십일일아츰에 떡을해가지고 황해도재령군신환포(載寧郡新煥浦)에잇는 처척모의집에가서 동리사람오십여명과 갈이 난호아먹엇는바 한서너시간 지나서 돌연동리사람오십여명은 구토와 복통을일으켜 그중십여명은 중태에빠지엇다는데 그곳경찰의조회로 당지경찰에서는원인을 조사중이라한다

사건은 대판검사국 창택(倉澤)검사의 지휘하에 철저한취조를 계속하고잇던바 영, 미, 불, 서등 십일개국 백구십여명이 관계하야 백만원을 돌파한 악성의"불매"인것이 명백히 들어낫스므로 이십륙일 칠백메ー지나되는 일건서류와함께 송국하엿다

聯合靑年團
理事總辭職
元事業部長不祥事件으로
職務管理의責任明示

【東京電話同盟】대일본연합청년단의 비행기헌납운동을 기회로 상인과 담합(談合)한뒤에 일만원을 바더먹은혐의로 수일전경시청에유치된 동단의원사업부장인 전협회시천시 금등광치(金藤光禎)의 불상사건에 대하야 동청년단에서는 그선후처치책을 협의하기위하야 어십칠일오전구시부터 오후네시까지 일곱시간에걸처 긴급이사회를열고 협의한바잇섯다 출석자는 향반(香坂)이사장을 비롯하야 환산학길(丸山鶴吉)길전무(吉田茂)동경부(東京府)대판부(大阪府)추전현(秋田縣)도근현(島根縣)병고현(兵庫縣)의 각교육과장등 십륙이사로서 석상에서향반이사장은 일직원개인의과실이라하드란도 청년단의사명에비치어보아 직무관리책임의귀착을 분명히하야 직시이사의결의를 표명하얏스므로 전원일치하야인책퇴직키로 결정하고 직석에서 사표를모아 이사장사무취급인 율원(栗原)상임이사에게 제출하얏다 율원상임이사는곳 이날이사회경과를 전국의단장대의원에게 보고하는동시에이에따라 일어날전국적동요를미고저 극력선후조처를 취하고잇다

不良外人들의
弗買事件送局

【大阪電話同盟】위체관리법의등제를 교묘히버서나 거리를취하고잇던 불량외인의 불매(弗買)

木炭自動車
各地에宣傳

조선공업협회(朝鮮工業協會)에서는 총독부연료과(燃料科)와 협력하야 오는십이월일일부터 십일간 대전(大田)대구(大邱)부산(釜山)청주(淸州)방면에서 목탄자동차 보급선전을 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 지정한 각종목탄자동차를 경성으로부터 운전하야 앞에말한 각지에서 판게자를 집합케하야 좌담회를 개최하는동시에 실지운전을하야 판게자의인식을 새롭게하기로되엿다

昌信町에僵屍

이십칠일 아침여섯시쯤되여 부내 창신정(昌信町)사백구십번지 암길에 이십전후 소년의죽은 시체가 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 얼어죽은 것으로 판명되엿다

集合移民의移住費
當局이斡旋、鮮滿拓殖會社에貸付交涉中

명년도부터 실시하는 만주국으로의 통제농업이민중 집단이민과 집합이민은 다만조선내의 인구대책으로서 뿐만아니라그입식(入植) 현태의 집단적인관계상 계획과 병행시킬필요가 잇는것인데 따라서 소작지과소(寡少)의 농가이주를 계획하게되는것이나 사실상 그들의 대부분이 빈농이므로 이주여비를 자변할수업는 형편이다 총독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짐작하야 집합이민에대하여서도 집단이민의취급에 준하야 호수이삼십호이상에는 이두비용을 선만척식회사에서 대부하고 도이주후에 필요한돈을 금융회(金融會)에서 빌려주도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방금 선만척식회사와 교섭을 하고잇는중이다 교섭가일반의수속을끄을게하는바이다

業者의認識要望
京畿道石炭懇談會

기보=엄한기를 아페두고 부내각가정에서 쓰는석탄 연탄의 수급관게를 원활히하고저 취체당국인 경기도 경제경찰과가중심이되여 개최한 석탄판매업자간담회 석상에서 업자측에서는 공정가격이 너무나 싸다는비난이만흔데대하야 취체당국으로서는그때문에 팔기를 앗가워하야 원활한 수급관게에 방해가되는 경우에는 부득이단호한 취체를 할수박게업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히여업자의 비상시적인식을요망하엿슴으로 금후업자의 태도가 주목된다한다

防空訓練中
鐵道手殉職

경성에 잇서서 이번 방공연습의 첫희생자―철도국경성공무에 근무하는 철도수(鐵道手)소송경차랑(小松京次郞)(二五)씨는 용산역안선로에서 기차에 치여즉사하엿다 그는 이날밤 철도국방공연습에 출동하려고 잠간한길을 거러가다가 진행하는기차에 바치여 죽게된것으로 방공훈련으로말미아마생긴 희생자이라한다

映畫祭第二日、人氣는絕頂에
日曜를利用來場
製作工程實地見學
名畫鑑賞會晝夜上映

이십칠일 본사주최의 영화제 둘째날은 마츰일요일이자 날세도덜추워서 제일회장인 전람회가 채열리기도전부터 관중이몰려들어 장내에는쉬새업시 군중이들고낫엇다 열한시에 개장하엿는데 오후두시까지에 발서천여명의 관람객이 잇섯는바 그입장자의 대부분이조선의 문화중청년남녀 들이엇고 그들의생활에 영화가 얼마나 판게가기푸며 그들이 고난의길을 밟고잇는 조선의영화를여마나 사랑하고 잇는가를 여실히 말하는 듯하엿다 영화법(映畫法)을 소상히 기록한게시며 조선영화계보(系譜)세계영화발달 략사등등 일반관심자는물론이고 전문적 영화인으로서도 새삼스럽게 엇는바가만흔모양이어서 장내의 군데군데에서는 수첩을 내고 열심히보고적고 하여마티 영화를 공부하는 강당인듯하엿다

그리고 제이회장인 부민관에서는 이날의 명『고로』인『입자업는나루배』와『심청전』을상영하엿는데 만장의관중은 우리손으로 지어진영화를 감상하고 한층더 그리운정과 사랑하는마음을 가지게되엿다

(사진은 영화인촬영장의 마다른글목의 장면)

콘도르機
一日夕刻到着?

【伯林二十六日發同盟】일독친선 비행기『콘도르』기는 드디어 이십칠일오후네시 백림교외의『캄멜』비행장을『東京』을향하야 떠낫다 동기는도중『바수라』『하노이』에착륙할예정이고『하노이』를 삼십일밤 이륙하야 무룻십삼시간에『하노이』입천(立川)간을 날 예정이고 일본시간일일오후오시에는 입천비행장에『곱인』할예정이다

旅客機遭難
搭乘者四名慘死

【靑森電話同盟】여객기의조난에 대하야 수사차륜파난 현지수사대의 보고에의하면 청삼현동진경군동악촌대자동태(靑森縣東津輕郡東岳村大字東太)의 산속에추락하야 기체는대파하고 탑승자사명은 모두참사하얏든것을 발견하얏다 원인은 상세불명이나 기관의 고장인듯하다

鐵材窃盜兩件

【咸南支社電話】함흥경찰서에 색다른절도사건―(其一) 이십사일오후일곱시쯤 함흥서형사대는 부내본정(本町)일정목가로상에서 자동차를세우고서 다섯명의 청년을검속하는동시 가지고오던 이불을압수하야 조사하야본즉 의외에도 그이불속은동(銅)선으로발견 칠편이나되는 ... 하야 곳이것하고 취조중이다 그들은 홍남면신상리(新上里)에잇는 김동환(金銅煥)외의사명으로 지난이십사일밤에 홍남질소에잇는 ... 여가지고 그날자동차에실고 함흥가라왓다가 ...

(其二) 이십사일오후 다섯시쯤 부내형무소(刑務所)압거리에서 김지근(金智根)(二二)이라는 청년을 인치하고 취조하얏는데 그는지난이십일밤 우홍합동여구내에서 기판자 제동기(制動機)

舞踊家朴永仁氏
伯林에서活躍
國立舞踊學校講師에就任

【伯林二十五日發同盟】백림에체재중인 일본무용가 박영인(朴永仁)=일명邦正美=씨는 독일국립무용학교의 강사로 취임하야 이십오일 제일회의 교수를하엿다 그학교는 특히바씨를위하야 아세아무용과를 신설한것으로서 일본인으로서 외국의 국립무용학교에서 교편을잡기는 박씨로써처음이다 세계무용계의 천단을 것고잇는 독일무용계는 박씨로말미아마 일단의 진보를할것으로 기대된다는데 세계각국에서도 다대한 주목을하고잇다 그리고 어실된 아세아무용과학생은삼십명인데 그중에는 그학교교수도 참가하여잇다고한다

遞信吏員養成所
入所合格者(第二部)

체신국 체신이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에서는 지난 십삼일부터 나흘동안 동소와전조선주요우편국에서 일제히보통과생입소시험을 하엿는데 응모자일천백삼십팔명중에서 삼백구십사명이 합격되엿다 이 합격된 생은 내지인에한하고 우편소에 근무하는 제이부합격자중 조선인은 좌기이백칠십일명이다

金道盛 黃水岩 金元基 任璟彬 金成澤 金德俊 李鐵鎬 安在五 金正斗 許養善 金東萬 尹曦老 朴鍾太 李鍾律 金載培 劉洪南 尹誠求 金京式 徐致勳 金大元 李昊冕 趙膺九 金江龍 趙昌善 元炳麟 趙東麟 李秉仁 張龍律 金植烈 朴盛列 金慶燮 柳永春 李起燮 李方澤 金祥泰 魯琪鉉 兪日奉 金圭成 金鍾觀 裵奉達 金元述 李大彥 李達翼 金熙洙 崔善奉 崔鉉奇 李仁玉 李壽稷 康順文 白萬玉 朴東一 裵甲九 李永錫 金一錫 千世萬 夫正釆 崔貴祚 崔萬 吳祥龍 梁學永 申東沼 朴昌俊 李晋榮 金京河 吳泰春 金周泰 吳鍾淼 裵時寬 成雲慶 金泰根 朴洛源 李景祚 張道龍 白鶴洙 金鍾鎬 朴正炘 洪性旭 車今用 趙順行 鄭士容 張炳元 韓金石 文奉來 白基榮 鄭生秋 金官國 林寅鎬 金允玉 趙斗銀 宋汝琳 方鎭強 李連培 金正根 韓長錫 李鳴遠 林在雨 金炳杜 李聖煥 柳慶秀 李碩雨 梁漢秀 金鳳眞 李星世 金振泰 李駿遠 金相睦 權東福 金大鏞 崔炯模 崔炳烈 金鳳俊 姜求成 辛泳碩 張德柱 崔慶浩 李杰模 趙炳濟 朴龍錫 李順浩 金灤起 李鎭鎔 金基鉉 朴龍石 李秉淼 金國元 金斗洪 白文鏞 金璉植

鄭煥浚 梁龍鎬 洪淳復 尹泰洙 申鳳鶴 金甲洙 張錫煥 金順七 徐允立 金永洛 李香植 朴鍾潤 李桂烈 孫鳳秀 宋鳳鐵 金炫明 金八命 鄭鳳珍 吳東植 許鋼積 徐昌順 崔敬穆 趙大勳 孫啟聖 金鍾柱 姜偉模 金世章 裵台田 徐点吉 韓大炯 吳元榮 申鉉斗 金文祥 李容喜 李癸植 朴均泰 申福根 金起江 朱明植 金承墉 尹命祚 柳瑞華 方文鎬 崔鍾順 姜信厚 朴稚瑞 金順祥 文鳳柱 李鎬謙 金祉鎔 金漢洙 千永晩 崔海鵬 崔允星 尹喆老 李寬和 許淵 鄭珩璥 李永休 車龐烈 徐漢仁 趙炳龍 金源訖 洪起燮 趙鏞禹 朴星彩 金璧 趙廷稙 朴成根 金亮泰 尹承勳 安秉哲 李淵秀 權五顗 梁信淑 文學根 金基鐵 元鵬年 金鍾五 李相浩 朴熙允 申開東 陳渭萬 金榮昌 金汶源 崔昌益 金尙順 黃昌柱 李仁珏 李禹鎔 尹祐燮 金哲洙 金善玉 金泰善 李德咸 金容哲 崔元植 尹源植 元机喜 鄭允校 朴男圭 金應瑞 明在善 李慶山 金彰烈 鄭鍾旭 朴顯榮 全在福 玄泰善 金炳根 金花容 朴基洪 裵章憲 金義鎬 李鍾弘 金元淳 劉正圭 張正燦 河龍珍

林道開發計畫
豫算關係로減縮

총독부림정과에서는 명년도부터 림도(林道)개발십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칠월 각도지사에게 림도개발십개년계획을 조건에관한 통첩까지 띄웟섯는데 그요구예산이 재무국사정에 부인 명년도분만으로 이십만원이 중 국고보조액십이만원이 승인되엿슴으로 최초의 예정계획을 축소할수박게업서서 총독부에서는 각도로 하여금 철도기설도로로는 근근 개척할도로기타운반설비와의 련락관계를 고려하야 그전예정계획중에서 명년도부터 삼년간에특히 긴급한 로선만을선정하야 림도를개발하기로되엿다

公衆電報
取扱을增加

철도국선 전거장이 명이어 데서도 전보를취급하지 안튼 정거장에서 공중전보를 취급하는곳은 일백세곳으로 정거장총수오백오십사에 대하야 이할도못되는편이다 물자를 만흔대로 어더쓸수업서 통신기타확충을 하기가곤난하게된 체신국에서는 철도전신선가튼 기설노선을 일반에게공개하야 통신『써ー비스』를하기에 착안하고 근근철도국과、협의회를여러 명춘부터 차차공중전보취급역을 늘려가기로되엿다 전보취급 우편국소가적은 조선으로서는 정거장의 이와가튼개방은 전신망의 큰확충으로 일반국선저거 다 지금 수잇게된 ...

하야 방공연습 『空襲』 ... 지난이십 ... 그모임을마치지은후 이십일 ... 총독부제이회의 ... 공무국 ... 실시 ... 기념 ... 오전에대한 ... 후게속하야 ... 그결정된것을 ... 한다

強敵·京師를壓倒코
培材軍遂優勝
이로써두번째大阪甲子園行
全日本中等럭비豫選

명춘一月甲子園에서 大阪每日新聞社主催로 開催될 第二十一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ー選手權大會 朝鮮地方代表選拔大會決勝戰인 培材中學對京城師範의 試合은 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觀戰하는 學生과 觀衆의 歡呼속에서 培材中學과 京城師範 兩校가 對戰하야 再昨年에 全北一中을 九對八로 擊破하고 全日本選手權大會에 出場하얏던 培材中學이 前日에 强敵養正中學을 운로 二十二對三으로 擊破하야 朝鮮代表權을 獲得하게되여 두번째 戰地大阪으로 遠征케되엿다

培材22 京師3

培材對京師決勝戰은 同午後二時부터 上野(主)富田、太田(線)三氏審判下에 培材킥어프로開始하바 開戰한지 二分만에 京師 中村의 드롭킥이 成功하야 京師가 선제의 三點을 어더 前半二十分附近에서 培材가 孫成男의 킥으로 陣列 二十四分에 培材 캡틴 孫成男의 킥으로 同點이 되고 二十五分에 劉仁晳의 트라이와 뒤이어 二十五分에 劉仁晳의 트라이를 孫成男의 킥으로 得點 一、十一對三、十一對三 十六對零되니 勝勢는 이미기우러진듯 前半부터 培材의 勝利는 거의確定的을되엿다

【京城師範】
FW 村二房、近崎、天寺、本田、好林、田藤、山 殷繼祺、德野
HB 木鄭、蔡李、赤山、邦小、梅梅、三中、池安
TB
FB 晶

【培材中學】
FW 禎源成奎鳳弘烈昌男烈利煥基植
HB 劉中東仁車亨淵鍾瑛選內泰德元學
TB 洪李林劉李元秋金黃孫徐梳金白
FB 禹

에 培材는 後半二十分에 드러가 二分에京師 中村 ... 에 培材의 ... 十六對三으로 前半 ... 培材는 後半에도 九分에 培材 ... 二十二對三 ... TB 徐丙珏의 트라이로 十九對三、十 ... 보이다가 라인아웃되다

培材22 (16…0 / 6…3) 3 京師

朝鮮學生氷上聯盟
今年事業案

朝鮮學生氷上競技聯盟에서는 ... 回의 評議員會를열고 다음과갓치 今年度의『스케ー트』事業을 決定發表하엿다

一、中等아이스·하키ー 一月十四、十五日(大學링크)
一、大學專門아이스하키ー大會 一月十七、十八、十九日(大學 또는淸凉里링크)
一、大學專門學校피규어大會 一月廿一日(大學링크)
一、中等學校피규어大會 一月廿一日(大學링크)
一、中等學校스피ー드大會 一月廿一、廿二日(淸凉里링크)
一、大學、專門스피ー드大會 一月廿一日、廿二日(淸凉里링크)
中等學校스피ー드大會는 昨年度까지 白狗滑氷俱樂部가 主催하던것을 同聯盟에서 引繼開催하기로되엿다

早大를一蹴
立敎大學籠球軍

關東大學籠球의 優勝을決하는 早大對立敎第一回戰은 廿六日午後一時半부터 國民體育館에서 擧行하바 立敎先勝하엿는데 立敎팀에는 ... 金日成兩君의 活躍이 눈부시엇다

立敎47 (2021 / 2418) 42早大
東大54 (2831 / 2315) 38文理

암스트롱判定勝

【紐育廿五日發同盟】페더ー、라이트、웰터ー各級의 三選手權을 獨占한 世界拳鬪界의 寵兒 黑人選手 암스트롱選手는 比島 웰터ー級選手 가루샤의 挑戰을 바더廿五日當地에서 對戰한바 十五回의 熱戰끄테 암스트롱君이 判定으로이겻다

明日의運動

▲籠球=朝鮮中央基靑主催 第十二回京城中等學校籠球리ー그第十五日 道商對中央、普成對善隣、青學對徽文、高豫對電機午後六時半 鍾路靑年會室內코ー트(入場料拾錢均一)

奬忠壇에
縊首屍

이십칠일 오전칠시쯤 부내장충단(奬忠壇)공원속 소나무에목매여서 죽은 여자를 ... 도적하야 그중네개는 벌써 팔러먹은것을 자백하엿다 절 재기근시대에 나흔두가지색다른범죄는 흥미를끌고잇다 ... 러먹으려든 것이다

響鈴色

이번에 개최된영화제는 이십년간의 마나실화를 바덧슴가보다마는 ▲역사가 옮지기는데에 는 시루가쫏는변, 지금에는 적은나마 우리에안목에는 크게보히는 미동적한 성과가『우리의 현실』로서 기염을 토하고잇지안흔가 ▲사업에는 의례것시비를 붓치라는 우리의 고약한성질을 이러기회에 다시한번반성하도 또기끄집의 하나일가한다 ... 시할내에서 ... 조선영화계의중 결산보고라고 볼수잇다 ▲이따의명예 한 조선영화계의 첫개척자에게 한것도 보답음은 뒤를따라는 분들일이엇겟고 일반들이 알어선 수만흔 일반들이 열 사회의 ... 내하며 ...

天氣豫報

槪況 高氣壓은 蒙古方面에 七八〇미리를 보히고 北支那及半島에서 西日本을 걸처서 氣壓이 가장 놉지만滿洲中部에는 小低氣壓이잇다 朝鮮은 晴 滿洲東部는 地方에따라降雪이잇지만 其他는 개이고西日本은 天氣가조치만 關東以北은 雨雪이不止이다

豫報 今夜明日晴一時曇

昨日最高 五度七
同 最低 零下五度九
廿七日朝最低 零下五度一
同 正午 三度四

曆

▲十一月二十八日(月曜)陰十月七日 ▲干支甲子 ▲日出午前七時二十五分 ▲日南中午前零時二十一分 ▲日入午後五時十七分 ▲晝間九時五十二分 ▲月出午前十一時四十二分 ▲月入午後十時四十八分 ▲滿潮(仁川)午前八時三十五分 午後九時五分

鏡台額椽卸 型錄進呈要三錢 大陸商會 釜山·草梁町

보음 보양 엔 大丸 京城府禮智町二五 京城藥業社

新人短篇傑作集發賣

海州府會議員 裵秉斗

製油原料 白胡麻都賣 李東奎商店 京城府公平町七一 電話光二七〇三番

性病 尿の病 淋疾·消渴·腰小便 ... 養養漢方 四回の春 悅樂 ... 京畿道 ... 尿病部

ノアピ葉山 國民精神總動員は音樂から 日本樂器會社 京城出張所 京城府本町一丁目

齒痛 頭痛 에 는 田効散 效力이빠른것이 特色 本舖大阪 森田製藥所

コドモのかぜねつにオイン

世界的瑞西強壯劑ノイエトニク國産品完成
虛弱·病的體質改善劑
ノイエトニク 노이에도니구
結核腺病質治療及防豫强壯劑 ノイエトニクヤグ 구아야노에도니구
神經과肉體를根本的으로補強하는新學理에基한
總發賣元 新井藥房 製造元 ノイエ製藥所 代理店 京城藥局

祝映畫祭

銃後婦人にいきほしい! 健康化粧法

天一映畫……金素英

호르몬으로…
皮膚가健康케이뿌게된다

1 クラブ乳液

먼저 호르몬化粧水의クラブ乳液을脫脂綿에적셔서얼골과목을훔처냅니다汚垢와脂垢가깨끗이닥가집과함께毛孔을引緊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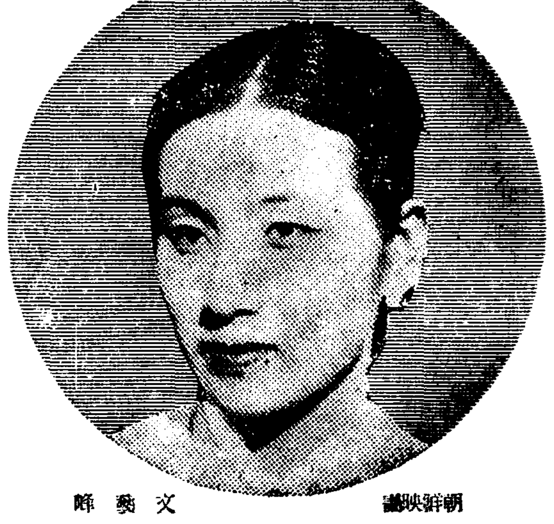
2 クラブ美身クリーム

다음에クラブ美身크림(綜合호르몬配合)을얼골에잘펴바릅니다白粉을잘받게하고化粧이오래감과함께살결에豐富한榮養을주어서젊고이뿌게합니다

3 クラブはき白粉

그우에 クラブ가루白粉(綜合호르몬配合・二色)을파후로가벼히눌르는듯바룹니다最後에クラブ빰연지눈섭먹입술연지로모양을냅니다

ニキビ (여드름)
にきびとり 美顏水



朝鮮映畫 文藝峰

여드름・부스름에 반드시이藥

여드름 부스름等에非常히 잘드르므로 大評判의 藥입니다。

▲美容藥으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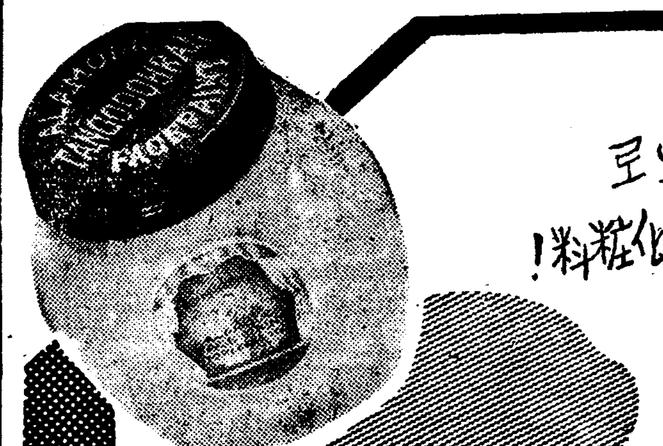
이藥은 美容藥으로서도 比類업는效果가잇서서 常用하면 여드름、부스름을 防止함은勿論、살결이곱고윤태가나서 얼굴이예 어뻐집니다

▲蚤、蚊、南京虫、진드기等의毒虫으로 가려운때

그러한때에도 이藥을조금바르면 가려움과아픔이異常하게도 머저지고 그자리가부스럼이될念慮가업스므로 애기들이잇는 家庭에서는 더욱便利합니다。

化粧用美顏水

アラ顏の化粧下に最適!



그림・化粧水・白粉의三重作用이一品으로
한번에作用하는・美와魅力의스피-드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化粧의 가을!
只今이정말整肌의期節

한여름 찌는듯한더위에 海의陽-山의陽-街의陽 뜨거운햇빗에 거치러진 살결을『タンゴドーラン』으로一掃하야…… 내가가진健康美를마음것자랑하자!

(各데파-트・藥店 化粧品店에잇슴)

TANGODOHRAN
얼굴色에따라 一層더어여뻐게되는七色
빗이흰분은……白色
빗이푸르죽죽한분은……淡紅色
히지안는분은……早曉色
흙빗한분은……爽健色
빗이붉은분은……新鮮色
定價各色一個六〇錢 地方郵送料加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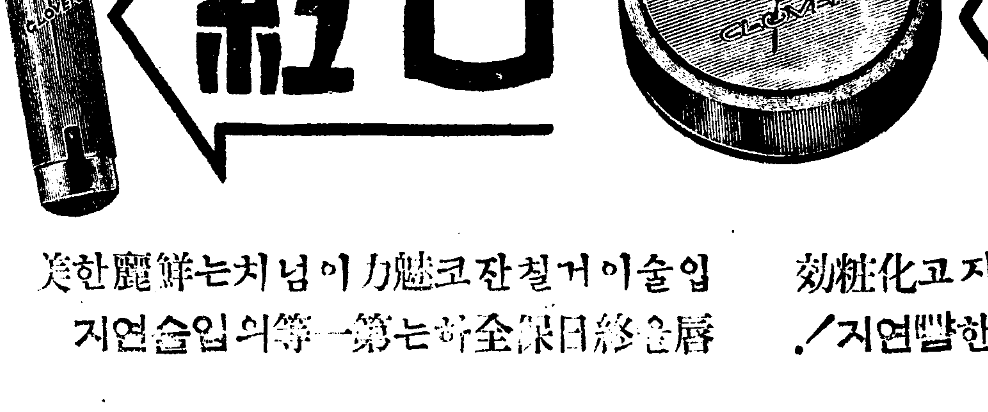
東京大阪 株式會社 宇野達之助商會・黑鳥メール本舖

朝鮮映畫

004171

모든연지中에서第一
아름다운魅力을發揮하는

クラブ



頰紅 口紅

생기잇는自然의健康色으로발라지고化粧效果를數倍나노피는色澤豐富한빰연지/

입술이거칠잔코魅力이넘치는鮮麗한美와 唇을終日保全하는第一等의입술연지

クラブレーモンクリーム本舖・三葉商會・東京・大阪

增產篇

叺生產檢查總計 六千七十七萬枚 前年度總數의倍額

穀物檢查十月末現在의 叺生產檢查總計는 穀肥合計六千七十六萬六千七百六十八枚에 達하야 前年度生產高의 約倍額에 達하얏다 各種總計를 前年과 對比하면 如左하야 穀用의 飛躍的增加를 보혀하야 生產減少念慮는 肥料用叺도 總計에잇서서는 微少하나마 增加이엇다 (單位枚)

	十三年度	前年度
穀用四斗	[illegible]	[illegible]
穀用三斗	[illegible]	[illegible]
鹽用	[illegible]	[illegible]
肥料用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各支所別內容中 主要한것은 如左하다 (單位枚)

	穀用四斗	鹽用	肥料用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楊州 繩叺競技大會 郡內各面選手出場

[楊州] 楊州郡內 繩生產을 獎勵하야 一百萬貫의 目標로 品質向上과 技術의研磨에 全力을 다하는 楊州郡農會에서는 지난十八日 農會倉庫廣場에서 繩叺競技大會를 開催하엿는데 女子選手多數參加로 人氣는 이에 集中하야 大盛況을 이루엇다는데 入賞者는 다음과 갓다

▲男子 一等 楊州面新谷里 鄭榮根 同里 鄭基得 二等 楊州面新谷里 金鳳根 民樂里 朴仁壽 防城里 金德里 三等 朝陽里 李淵仁 高山里 李点山 三等 朝陽里 李承宰 洛陽里 姜明根 防城里 金德允 過古里 李錫家 同里 金成英

▲女子 一等 朝陽里 徐今天 二等 同里李氏 新谷里 崔氏 三等 山谷里 南氏 古邑里 崔氏 三等 金昌里 (寫眞 繩叺競技光景)

忠南天安郡內種豚 滿洲서도注文殺到

[天安] 忠南天安郡當局은 養豚을 힘써 獎勵하여오든바 昭和七年以來로 七年間을 日本內地로부터 「바크샤」라는 種豚을 注文하야 郡內에다가 獎勵시켜왓던바 現在는 其質과 量이 相當히 良好하므로 往往朝鮮各地는 勿論 滿洲에서도 注文이 드러온다 郡當局은 種豚을 獎勵하는 同時에 注文에 應하야 輸出中인데 日前에는 江原道 各地에서 五十餘頭의 注文이 드러왓다는바 日間 보낼모양이라한다

江原道 蠶增產에 拍車 明年度부터各郡에 二百萬本을植桑

[春川] 國家代表的產物인 蠶繭은 江原道에서도 相當한 產出을 보고 잇는데 더욱더 增產을 圖謀하는同時에 널리 普及시키기 爲하야 江原道農會서는 今年度부터 五個年擴充計劃을 樹立하고 먼저 植桑을 獎勵하게되야 一千萬本을 目標로 今年봄에 百八十二萬二千七百六十一本을 심엇고 明年度에는 約二百萬本을 심을러이라한다 하는진가를 利用하야 各農家에서는 구덩(穴)을 미리 파노트록 獎勵하리라는바 各擔任者는 出張督勵하리라하며 明春에 植桑할各郡本數는 다음과 갓다

春川	一四六、五七四本
麟蹄	五五、七五〇
楊口	八〇、四〇〇
淮陽	一〇五、一二〇
通川	六四、四〇〇
高城	一三五、三八〇
襄陽	五九、三八〇
江陵	一一〇、四〇〇
三陟	八七、一二〇
蔚珍	五二、三六〇
旌善	六二、六一〇
平昌	二七六、七六〇
寧越	一二六、〇四八
原州	一四七、〇〇〇
橫城	一〇四、六九〇
洪川	一〇〇、八〇〇
華川	五六、三〇〇
金化	一一七、七〇〇
鐵原	六〇、〇五〇
平康	八四、九六〇
伊川	一四一、〇四八
計	二、〇七三、七七〇

物價 (廿七日)

▲果實類

早生赤	三貫五入	[illegible]	[illegible]
明月	同	[illegible]	[illegible]
溫州蜜柑	石油箱入	[illegible]	[illegible]
紅玉(鎭南浦)	四貫	[illegible]	[illegible]
同(大邱)	二貫	[illegible]	[illegible]
바나나 臺灣	十貫色付	[illegible]	[illegible]
葡萄(간)	內地	[illegible]	[illegible]
同(마스캇)	岡山	[illegible]	[illegible]
梨(二十世紀)	內地	[illegible]	[illegible]
國光(大邱)	二貫	[illegible]	[illegible]
同(鎭南浦)	四貫	[illegible]	[illegible]
메론	一貫	[illegible]	[illegible]
富有	柿四メー	[illegible]	[illegible]

▲海產物

乾明太 新(元山一䭾)	[illegible]	[illegible]
同(西湖津 同)	[illegible]	[illegible]
同(退潮 同)	[illegible]	[illegible]

▲穀用叺及繩

		天	地	人
指定價 京畿	一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榮山浦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價全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畿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繩(袋繩白米十五키로)	自二分至四分	八厘		
穀用繩(玄米)	自四分至四分	二厘 五厘		
荒繩		[illegible]		

▲家畜飼料

粉末配合 產卵鷄用	一二五斤	一號品 二號品	[illegible]
同	雛用	普	[illegible]
同	中雛用	上	[illegible]
同 三種配分粉餌		特上	[illegible]
成鷄用四種配合粒餌			[illegible]
同 三			[illegible]
雛用二種配合粒餌		一〇〇斤	[illegible]
大麥		(丸)	[illegible]
玉蜀黍		(中割)	[illegible]
同		(粉末)	[illegible]
同		(丸)	[illegible]
高粱		(粉末)	[illegible]
同		五斗	[illegible]
玄米		〃	[illegible]
麗麥		〃	[illegible]
大麥		七五斤	[illegible]
小麥			[illegible]
麩			[illegible]

▲蔬菜

松茸	百匁	[illegible]	[illegible]
白菜	十貫	[illegible]	[illegible]
玉葱	十貫入一個	[illegible]	[illegible]
白菜	一貫	[illegible]	[illegible]
土當歸	同	[illegible]	[illegible]
甘藷	同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	同	[illegible]	[illegible]
玉葱	同	[illegible]	[illegible]
昨慕石油箱		[illegible]	[illegible]
長大根	十個	[illegible]	[illegible]

(京城府營市場調)

同(鎭南浦)	一等	[illegible]	[illegible]
同	一等	[illegible]	[illegible]
小明太	一等	[illegible]	[illegible]
明太卵	百斤	[illegible]	[illegible]
乾大口(元山)	百斤	[illegible]	[illegible]
同(北海道)	百斤	[illegible]	[illegible]
乾民魚	一手	[illegible]	[illegible]
生明太	新入荷	[illegible]	[illegible]
生鱈		[illegible]	[illegible]
明太子新入荷	一桶五貫	[illegible]	[illegible]
生青魚	百級	[illegible]	[illegible]
生民魚(新入荷)	一個	[illegible]	[illegible]

鰮油輸送澁滯로 咸北業者對策協議

[咸北支社發] 이즈음 輸送盛況期에 드러 咸北產鰮油는 容器其他輸送船不足으로 輸送澁滯를 보게되여 業者는 매우頭痛中인데다욱 하크等 鰮油價格이 狹擠하야 業者의苦痛은 적지아니하다 共販 朝郵 油肥聯에서도 三者協議하야 輸送難에對하야 對策和策으로 『契約成立後二週間以內引取할것』의 取引契約條項實行을 强調하게되엿스며 一方近日 咸北鰮油肥組合에서는 이의 緩和를 講究할모양이라한다

(寫眞 繩叺競技光景)

우리地方의 名產자랑 ①
高山乾柿의 今昔譚 (一)

全北支社 一記者

가장神習하고 아름다운 人間努力成果를 表象하여주는가을! 숙성하여진 結實 자옥한 收穫의바다! 蕭瑟寂然하면서도 우리의生活에 一種의 餘裕와 潤澤性을 도다주게하는것은 오직 가을에서만이 어들수잇는 觸感이다 그중에서도 色調와 味覺을 完全히 具有하고잇는 果實生產의 收穫은 우리人間生活에 色다른기쁨과 限업는 潤澤性을喚起케 하는것이니 이것으로써全生計를 세우지못한다 할지라도 趣好와 情感와生活을 한겹가리가질수잇는點으로보아 다른農業生產物에 比較하야 特有한 生產의歡喜를 가지게될것이다 農業으로 세드는 낙조에 방울방울美味를모르는것만도 生活의 慌息性을 止揚하는데 크다란힘이되거던 하물며 七百戶部落民全體가 果實收穫으로써 全生計를 세우고 日常生活全部를 依存함에잇서서 어찌特有한生活이 업슬수잇스랴!

이제 記者는 全北道完州郡東上面一圓에 散在하고잇는 大小部落의 大部分이 生柿栽培와乾柿製造로써 生計를 세우게되고 더구나 全北의特產에만 끄치는것이아니라 朝鮮의 特產品으로써 자랑할수잇는 高山乾柿의 本產地가 바로이部落이며 어部落의 特有한生活樣式과 高山乾柿의 生產製造販賣等實情을 一般에 認識시켜보고저하는意味에서 以下멋가지點을 紹介해보기로한다

萬一 東上面一圓에 감나무가 업섯다면 山間僻村으로서 黍粟雜穀이나 甘藷가튼 生產地가稀薄한 產物밧게 업섯슬것이며 오늘과가티 經濟的 地盤이 比較的 튼튼한 富力의 農村도 못되엿슬것이오 따라서 平和에잠긴 潤澤한 生活을 具有하지 못하엿슬것도 事實이다

그런데 現在約七百戶 四千部落民들의 生命線이 되고 잇서 一月當生產高는 最高 十二萬個로부터 最下二萬個까지 生產하게 되는 이 高山柿는 어떠한 由來를 가젓스며 어떠한 方法으로 製造되여 우리의 味覺을 充足시켜 주게 되는 것인가?

어쨋은 元來 東上面山野에 野生한 감나무의 一種고욤나무에 다 감나무를 接木하게된것이라는데 별다른科學的方法을 通하야 栽培하는것은 아니나 다른 감나무에 比較하야 다음과가튼 特性이 잇게된것이 高山乾柿로써 世界食料品市場에 내노하도 損色이 업슬만한 特性을가지게 한根本要素가 되엿다한다 即다른감과 比較하야 甘美가 絕大할뿐아니라 씨(種子)가 하나도 업는것이 特色이다 그리고 이高山柿의 種子를 東上面以外에 갓다가 同一한方法으로 接木或은植付를하야 노트라도 씨가생기고 甘味가적신 줄어들게된다고하니 이러한것은 어떠한關係인지 아직科學的으로 說明은할수업는것이나 그地方에서는 土質과氣候關係로 因한것이라고常識的解釋을 하고잇다한다

(寫眞은人家周圍에잇는감나무)

奉仕界의巨彈·七萬圓의大奉仕

朝鮮初有의大壯擧!
家庭救急常備藥十二種式(定價六圓)
一萬箱無料進呈

●本社는 非常時國民健康을爲하야 以藥報國의 犧牲的 大奉仕로 總額七萬圓의 家庭救急常備藥一萬箱을 提供하야 全鮮 百補丸愛用人士 一萬人께 無料進呈하기로 하엿습니다

●이것은實로 朝鮮藥業界有史以來 前無後無의 驚異的大奉仕인同時에 平和堂이아니고는 하지못할大壯擧임니다

●只今百補丸을服用하면 藥効도잘날뿐아니라 家庭保健에絕對必要한 救急常備藥十二種式(定價六圓)은 거저엇게되오니

●勿失好機하시고 只今곳 百補丸을 服用하시기 바람니다

無料進呈하는

家庭救急常備名藥

一	房後疲勞 氣血速補劑	正氣速補散
二	吐瀉救急 救急靈藥	唐麝香蘇合丸
三	健胃消滯	蔘茸靈神丸
四	학질약	金鷄納
五	옴 무좀 피부병약	皮膚萬能水
六	다친데 상한데 베인데	沃度丁幾
七	회충신약	회충산
八	두통약	健腦神
九	담기침약	袪痰鎭咳藥
十	해열진통	感氣藥
十一	同	同 錠劑甲
十二	同	同 錠劑乙

合十二種福箱入 定價六圓也
京畿道警察部許可濟品

進呈方法

●家庭常備藥十二種保健箱(定價六圓分)은 百補丸一劑注文마다 同時에 同包進呈합니다

●婦人百補丸、少年百補丸、其他十全大補、六八味丸等 本社特製丸藥으로 十圓以上注文人께도進呈합니다

●注文할때는 必히 『家庭藥十二種付注文』이라고 記入하여야됩니다

百補丸
조경포대 婦人百補丸

天下에百補丸以上 조흔補藥이업습니다

●食事나陽氣나筋力에나長壽에나 무엇에나世界어느나라藥보다도 百補丸이 越等이 効力이優勝함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는분
▲胃腸이弱하고 口味와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肢節腰痛이잇는분
▲過飮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 여위고 早老하는분은 即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補합니다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少年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어느藥이나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京城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 振替五番

最高의聲價

오래동안、第一位의 品質을確保하고잇는 本品은、斯界에잇서 最高의聲價와信用을 가진代表的비누이요

他品의追從을 不許한優秀性

◇더운물이나찬물에도適當히溶解하야거품은잘고오래간다

◇씨슨뒤에깨끗하야서淸掃力은完全하다

◇無比의整肌作用을가지고잇스므로麗膚에는不可缺

不斷의研究로빗나는! ミツワ石鹼 (미쓰와)

ミツワ石鹼 (미 쓰)

本舖 東京·日本橋·兩國 ◎ 丸見屋商店

D.57

映畫祭特輯

第一回映畫祭開會式 式辭

本社長 方應謨

本社가 第一回 映畫祭를開催하는데잇서서 映畫人諸氏의 熱烈한 支持뿐아니라 날새가를시키는데 여러분의 바뿌신것도 不顧하시고 몸소 또는 精神的으로 이일에 協助해주서서 開催期日인 오늘에 展覽會나 上映會나 하나도 支障업시 完全히 열게된것은 매우기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誠心誠意로 努力하시는것을 보고할때 直接으로 感謝하다는인사의말슴은 못드렷스나 마음으로 기ᄈ 感謝하게 생각하고잇든바를이 자리에서 인사하는것입니다 나로할하면 다른데도 다 그럿치마는 더구나 映畫에 잇서서는 門外漢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映畫나 演劇이니하면 거기에 從事하는 사람은 의례히 卑賤니 무어니해서 睥睨하는 弊習가 잇든 時代도 잇섯든데 오늘날에와서는 벌써 映畫라면 한개의時代的寵兒이고 時代的流行이되엿습니다. 이것은 勿論 映畫가 一般民衆에게 敎化하는힘이 매우 偉大한 때문이니 이러한 敎化力이 强大한映畫를 잘指導하고 잘 培養한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有益한 社會의敎育機關이 될줄로압니다.

따라서 映畫라는것의 이時代에잇서서 文化的價値는 진실로 큰것이올시다. 이러한意味에서 本社에서는 모든것을 犧牲하고라도 이第一回映畫祭를 開催한것입니다. 다행히 映畫人諸氏의 絕對的協力下에서 이만큼 盛大하게 開催하게되엿스니 이아프로도 더욱 더 緊密한連絡과 協調下에서 이런文化事業이 더욱發展해나가기를 바라면서 簡單하나마 이것으로써 式辭를드리는것입니다.

映畫祭異聞綺譚

가지가지의숨은이야기

展覽會場

본사주최의제일회영화제(映畫祭)는 드디어 작이십칠일 오전십시의 개회식으로부터 역사적인 막이 열리고말엇다

그러나 한번이전람회장에 드러서기가무섭게 그들의심경은 일시에 흥분이되고 긴장이되고 드디어는 황홀하야 못까지 경이(驚異)의 세계를 방황하는듯 비로소 영화라는것이 어떠한속에서 제작되는것이요 또 이게영화가 가진 신비의 세계인것도 깨닷게되는것이엿다 회장에는 군대 군대 안내인의친절한 설명이 잇다 이중에서 오랫동안 영화와 생명을 함께하여온 분들의 설명에는 말할수업는 숨은감격이 삭여저잇는것이니 가령 안종화(安鍾和)씨의 가장나지막하고도 다정스러운 음성이라던가 영화기술게의 원로 이필우(李弼雨)씨의 자상하고도미듬성만흔 두틈한 어조(語調)또는 이명우(李明雨)씨의 남성적이요 목직한 말소리에비하야 윤봉춘(尹逢春)씨는 독특한제스추어와 표정이 한층이채를 띄이고잇다 그뿐아니라 영화스타―의 장내안내와 설명을 뒤에서 일일히 지도하는이로서 김태진(金兌鎭)김성혁(金星革)두분이잇다

이러한 안내의기속에서 전람회를 맛게된것은 또한 다행한 이땅의 영화인들과 함께기빠할 일일이다

朝鮮映畫(小知識)

發聲映畫	九六本
無聲映畫	一四本
總卷數	八三二卷
米突數	一七八、九九一米
推定製作費總額	五十六萬八千圓

막다른골목

실연(實演)이라고 하니까 무는 일종의 에른다(劇파가티) 오해한분이 잇섯다는것은 나므랄수는업스나 좀성한일이엿는데 정말제일야(第一)의극대우에 전개되는 연극(演劇)을보자 판중속에는 저분들은 영화인(映畫人)이 아니라 연극인(演劇人)이 아니냐? 하는 기이한감을 느끼게까지되는사실 도도한 이해할수가잇다

우선 무대에 처음나오는 려롤바리 나옹(羅雄)군은 인찌기 연극연출을 본일이잇서도구대에 나서기는 십년도더넘엇스리라 인제다시 무대에선 그 칠칠하고도 묵중한연기는 실로리담스러웟다

프리란서―로성격적의장그여에는 그중 적연이라는 이화삼(李化三)군의 뱃심은 이무대를의누군는감이잇섯다.

이런중에 달빼만피여물고 지나가고 지나오는 젠틀맨이인(二人)뽀―이 심형(沈影)녹은기(獨眼龍)군

연극시작하면서부터 울고 그 울음이 이연극의 중요한 사건이 되여잇는 필립(李影一)의 진성갱이는 그체격과더부러 이무대우에 하나의 귀염스러운 존재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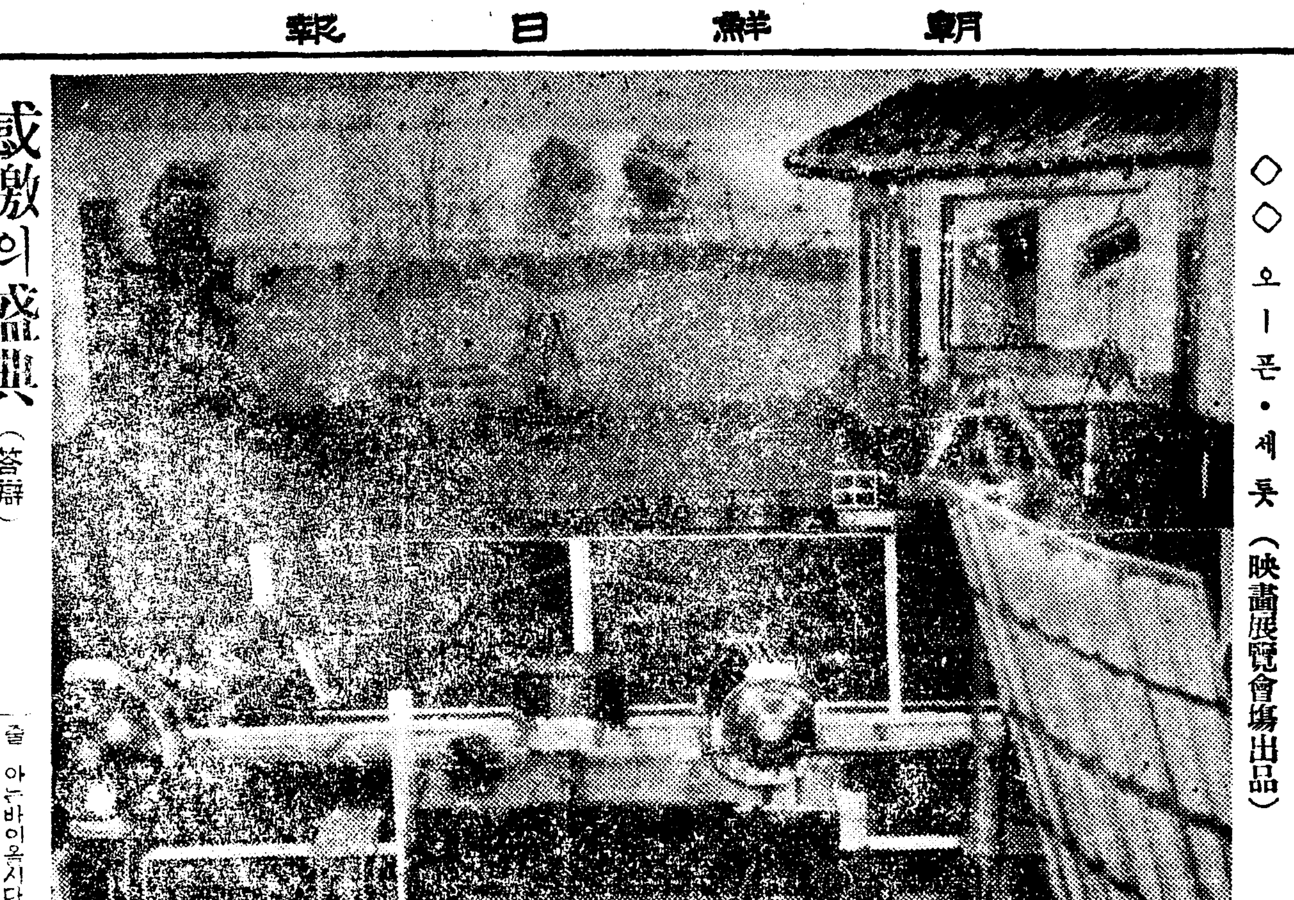
이중에서 빗나는별들!한은진(韓銀珍)양의 노파 노재신(盧載信)양과 복혜숙(卜惠淑)씨의처녀 지경순(池京順)양의 매소부연등 실로 가지가지의 명연기의 인상이 다시 새로워진다

끄트로 땅땅소는 괴스롭소리와함께 나타나는 갱그삼인조(徐月影 金漢 金一海)의활약이 또한 놀라웟다 경파(尹一淳) 한크(尹北洋) 그리스월드(李軒)의 열련― 이리하야 『막다른골목』은 이번영화제의 가장빗나고 인상기픈 스테―지를통한 정신적결합의표현이라고하겟다 (一記者)

各國映畫製作數(一九三七年度)

日本	五〇〇本
獨逸	一〇八本
伊太利	三七本
英國	二二五本
米國	四七五本
佛國	一一一本
蘇聯	六〇本
支那	五二本
印度	三五〇本
체코	五二本
埃及	一九本
比律賓	三三本

(映畫展覽會參考出品中)



◇◇오―픈·세트(映畫展覽會場出品)

世界各國常設館數

日本	一·六〇〇	洪牙利	六六九	波蘭	八八三
米國	二五·〇〇〇	瑞西	三四三	墺太利	七七九
伊太利	四·四七一	和蘭	三〇八	丁抹	三五三
佛蘭西	四·一〇〇	支那	二〇〇	愛蘭	一八九
獨逸	五·四一一	希臘	一五八	土耳其	一二一
체코	一·九三四	英國	四·三五〇	에스토니아	五七
白義耳	七九〇	瑞典	一·一七〇		

(映畫展覽會參考出品中)

感激의盛典 (答辭)

映畫代表人 安鍾和

오늘 우리들의 盛典이라할수잇슬 이映畫祭를 開催함에當해서 잠깐 한말슴하고저합니다. 映畫가 誕生된지 不過半世紀동안에 벌써 世界的으로 大發展을보여왓고 또는 오늘에 우리朝鮮에서도 二十年의 가까운 映畫의歷史를 가저왓습니다. 하면 지금 새삼스러우랄가르드나 映畫란 모든社會相을 反映하는 同時 또한 그國家그社會의 가진바 모든 文化程度를 測하는 役割을 하게되느니만큼 現代에잇서서映畫藝術이란 가장 優位에잇는터이라 生覺하는바이올시다 그러면 過去에 우리映畫人들은 남이 도라다보아주지 안는곳에서 오직 해보겟다는 開拓해야만 되겟다는 意志力하나만으로서 新開拓하여와던것인데 이것을回想할것가트면 여기엔 映畫人들의 숨기랴숨길수업는 壯한 자최가잇섯다고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苦難의길에올라서 朝鮮映畫의 씨를 뿌려보랴다가 불행이 먼저世上을버린 先輩者들을 生覺하니 그들과함께 오늘이映畫祭를 질거이맛지못하게되엿다는것만은 실로 섭섭한노릇이올시다. 그러나 이번 이映畫祭의 一部인 展覽會에잇서선 불행햇던 故友들의자취가 文獻으로던지 或은 遺作으로서찬연이 빗나거신줄 아는바이올시다 하니만큼 이盛典을 主催해주신 朝鮮日報社에 對해서한없이 敬意를 表하는同時 우리映畫人一同을 代表해서 간단하나마 한마듸 하여둡니다.

=막다른골목畫報= (上)은마―틴과″프란시″의러브·씬인 (下)는마―틴파갱그의格鬪場面(警官洞里사탐總출場)

이重大한時局에 꼭
임질을곳처야될여러분

百發百中으로根治되는二重殺菌의新發明治療法이 생겻습니다

지금까지 수만은 림질약이 생겻스나 完治率이 적엇든것은 엇더理由나하면 첫재로서 환자께서 치료약과 치료법의 선택을잘못하신탓입니다 즉 림질의 병균이 男女의 卵도조직에 병균이 들어잇는 탓인것을 똑똑히 깨닷지못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잇는 병균을죽이고 흔집을 곳치라고 먹는약을 복용하시고게신분이 만흐나 배속을 돌아서약간의 약기운이 오줌에섞겨 그곳을 지내게되는 內服藥의작용으로는 죽기에는너무도 굿세인병균이며 알을기에는 너무도업청나게 큰홍집이생겨잇기때문에 복약할사이에는 숨벽세가 개인듯하다가는약만끈치면또다시 再發되는 이미 여러분께서 경험하고게신事實일것입니다.

그러면 엇더케해야 속히 림질을근치되느냐하면 엇더한조섭과함께 병세에따라 상당한기간을두는수도잇스나 權威잇는 專門病院의 치료를 바더야됩니다 즉병세가변하는데따라 치료약의성질을 조합케되는때문에 더욱유효하오나 만일 病院에 못가시는 사정이게신분은 信用잇는 醫師專門藥『부라오銀겐고―루』의 二重殺菌療法(이중살균요법)으로치료하시면 病院치료와 똑가튼효과를 어더서속히根治됩니다. 즉 직접 병화근인 환부에약한방울을너면 가신듯이 병세가 낫어가는 약인데 더구나 지금까지의 치림제에서는볼수업는변해가는 병균의성질과 병세에맛게한치료법―두가지약을쓰는―이 강구되어잇는 만큼百發百中으로 根治됩니다

살은實例

갑싸고곳난는것이 저를살러주엇습니다

(咸南) 朴成龍

…早老하야 생활의 곤난파찻우니 나의半生은 평탄하고 재미란도모지 맛보지 못햇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림질에걸녀다는것은 참으로 청천벽력이엿습니다 집안의 형편도 형편이려니와 나의신세로서 이병에걸린것은 후회하자니것잡을수업는 깁흔마음에 빠즌것입니다 病院에는 갈수업는형편이라 前에듣지안튼 신문광고지에서 良藥을 차저내기로결심하엿습니다 사삿치듯지 一一히 읽어보앗스나 모다그럴듯하야甲乙을 가릴수업스니 깁일흔 병아리입니다 적으든은으로 엇더케하면根治를 바랄수잇슬가! 藥고를기에방황하다가 선뜻 눈에 띄인것이 부라오銀겐고―루입니다 說明文을 읽어내려가는中에 어느듯 나의病이나은 感이생겻습니다 그만 치치절히알기쉽게 학문으로다 실지로나 정당하다는늘 이나에게 제신을만들어준것입니다 最初로記호다 하고 겐고―루一號와二號의中병을주문햇습니다 한두번치료에 숨엇든고통이 쏘다저 나오고 오좀도 자자맑어지며고통도업서저서 다시금健강체로되게되엿습니다 이러케 손쉽게 집에서 곳치게된것도 오로지 나의용의주도하야 형편약에속지안코 한번에겐고―루를 골나낸 덕택이며 귀사의친절하신 지도에의한것이라고 밋습니다

斷念하엿든慢性淋疾을곳치고서

(大邱) 金星茂

(前略) 무럭대고 淋疾이란 나지안는病이라고 생각하야 임시적치료만으로 그럭저럭 지난지 數年이됩니다 그러나 근래에들어서 친구들의 모임좌석에서 흔히 근치되엿다는말이 나오게되니 남의말은 신용안하는 버나새이지만 다시금 活氣를엇고자 친구를 차저물은니 그것이 곳 貴社의『겐고―루』이엿습니다 반신반의로 치료를 시작햇습니다 사용함에도 조금도 불쾌한憂를 모르겟고 아조순순히 치료를 계속中 전에소비된 맥수분지一의 金額박게 안썻는데 病은 거진나은듯하므로 깃봄에넘처 貴社에 電信을올린그後의 病勢를말하야 지도를바더가면서 一心치료에힘썻습니다 인생四十이 각가운이몸에 새힘과 깃봄을 엇는날도얼마남지안엇개지요(後略)

엇재서 二重殺菌을 해야만되는가

『부라오銀겐고―루』는 有名인분이나 만성된분이나『一號』와『二號』를 계속하여서 치료하서야되나니 그理由는먼저말삼드린바와가티변화하는병세에맛도록 하기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기쉽게말삼드리자면『一號』약성집파『二號』약성집을 가티쓰면 결국 재래의국소약(局所藥)처럼 단일의성질밧게내지못함으로 반듯이『一號』로 병세를 다스르고『二號』로 알몸게하는 二重殺菌作用이라야만 림질을 단지일에 근치식히게되오니 의학게에서도이것을증명하고잇는바입니다

◇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림질근치약『부라오銀겐고―루』의 약가는 各號가同一하오니 보통약…一圓九十錢、十七日分…三圓八十錢이며 본보애독자에하하야 송료사십전을 본사에서 부담하고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

주문하시는대로『림질자병치료서』를거저드립니다

004172　K-208

新選文學全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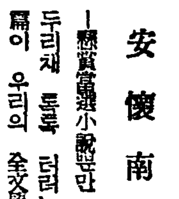
新人短篇傑作集 第二回配本

天才朝鮮의偉大한發現!! 朝鮮文壇의世界的水準

이『新人短篇集』은 朝鮮文壇을世界文壇에 宣揚시킬 偉大한 責務를 가지고 孜孜努力하는 新人들의 絕對自信잇는 傑作을 收錄하니만치 天才朝鮮의 文學的發露로써 우리文壇의 자랑이아닐수업다 우리는 이 一篇에서 既成作家에서 보지못하든 新銳의氣分과 純粹의芳香을 滿喫할수잇는것이니 曉天의 한個 별이랄까 黃昏의 할줄 무지개랄까 그빗나는 內容은 우리文壇의豪華版이아닐수업다 文藝愛好家는 勿論이오 一般文化人도 누구나 一讀할 良書임을 말하여둔다 滿天下讀者는 絕版前 速히 注文하여두라

第一回配本 朝鮮文學讀本 大發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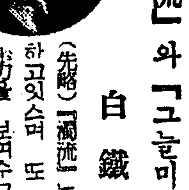
文壇絕讚의新人들作品



『남생이』에 對하여

安懷南氏 評文一節

―懸賞當選小說뿐만 아니라 우리 文壇全般을 두리채 통특 털러노아도 그중『남생이』一篇이 우리의 全文學水準을代表할만한 作品이라고 백번 밋습니다 一般既成作家들에게 向하야 新人의 무엇을 標本으로 내세우고 勸하는것은 섬張溫한일인는지모르나 나는이번『남생이』를 읽고 우리作家가 다함께 얼마동안 試驗해볼 課題로 描寫文學이라는것을 생각해보앗다 (昭和十三年一月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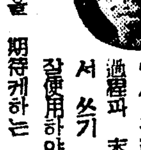


『濁流』와『그늘미테서』

白鐵氏 評文一節

(先略)『濁流』는 現在文學의 最高水準에 達하고잇스며 또 그 水準을 얼마 안잇서까는일 力을 보여주고잇다. 여기에그려진愛情은『지이드』의『香은門』에 그려지제로든 의『아리나』에게대한그아름다운 愛에比할것이잇다。(昭和十一年一月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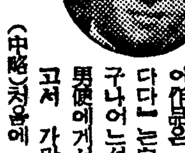
―나는『그늘미테서』란 作品에잇서서 新人으로서 차흔 絕찬 努力을 산다。新人에게 흔히 非難되는 用句의採擇이나 文章이나 對話에잇서서 新人다운 未熟과 조잡을 讀者의 아페 보이지안키우하야 오랜時日을두고 應職를加한듯하다 그리고 그 努力은 헛되지안어서 이作品은 洗錬이되엿다● (昭和十三年五月朝鮮日報)



『바위』에對하야

嚴興燮氏 評文一節

『바위』는 至極히 悲慘한 문둥병자가 겸에서 동리에서 쫏겨나고 남에게 버림밧는 過程과 末路를그린것이다(中略)바위에잇서서 쓰기 어려운 對話를그나마 사투리를 잘使用하야 作品을 잘끄러 나간것은 이作家의 압날을 期待케하는 조흔點이엿슴을 말하지 안흘수업다 우리가 이 作家에 어든것은 가장 기쁜收穫이라아니할수업다。(昭和十一年五月 朝鮮日報)



『白痴아다다』에對하야

李源朝氏 評文一節

이作品은 題目이 말하는바와가티 主人公『아다다』는白痴다 아다다는수룡에게로 갈뒤 미구나어느섬으로가서 수룡이의 돈을보고 전男便에게서 돈때문에 虐待밧든것을 聯想하고서 가만이 돈을 내다 바다물에 띄운다 가자빠지는것이라든지 其他作者의 說明으로 일관 白痴의印象이 머리에 남는다。이作品은 短篇으로서 決코 失敗햇다고할수업다。(昭和十年六月朝鮮日報)

◇◇

以外에『옥심이』『晴曇』은 新聞에揭載되여 絕讚을 방은것이오『中毒者』『寫生帖』『空想記』는 同誌의新作이며 더욱이『城隍堂』은 方今半島映畫社에서 映畫撮影中이다。이로써 이新人短篇集의價値를 넉넉이짐작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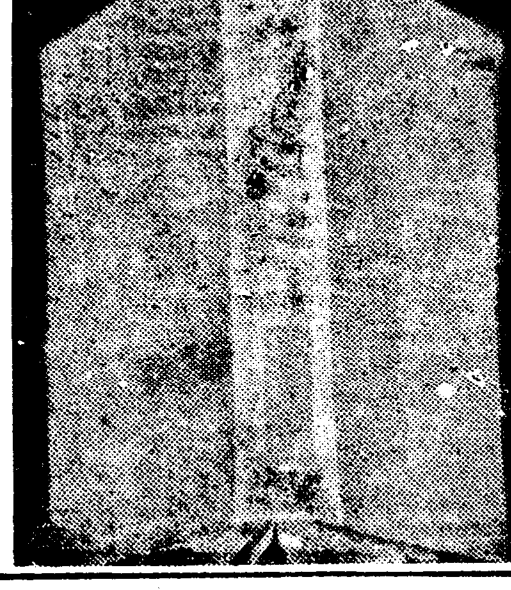
目次

남생이―玄德
城隍堂―鄭飛石
濁流―許俊
空想記―朴魯甲
옥심이―金廷漢
晴曇―車自鳴
그늘미테서―金沼葉
바위―金東里
白痴아다다―桂鎔默
寫生帖―玄卿駿
中毒者―朴榮濬

第三回配本은『朝鮮兒童文學集』十二月一日發賣

四六版크로쓰豪華美本三百五十餘頁의大冊
一冊 定價一圓二十錢 書留送料二十二錢
一時拂 四冊 四圓五十錢 (送料本社負擔)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먼저健康!
銃後의女性

銃後の務め!

愛國公債進呈 特賣

わかもと(一圓六十錢)사실때마다 〈懸賞問題附等外景品빠짐업시進呈 懸賞正解者에 抽籤으로 一等愛國公債廿五圓券一枚式 百本、二等 同拾圓券 一枚式 五百本、其他 五等까지 賞品多大

家業에家事에 公用에銃後를 守護하는 婦人들은 平常時의倍나 三倍를 活動하므로 그만치健康이 念慮됩니다。 疲勞가싸여잇지는안습니까 胃腸은튼々합니까 母體에異常은 업스십니까?

心身의疲勞에

팽팽한실이끈어지기쉬운 것처럼 緊張한心身은 疲勞하기쉬운것입니다 每日疲勞가 싸이고싸이면 結局은 助膜炎·腹膜炎·肺尖가다루와가튼 結核이생기던지 或은 胃腸病·히스테리ー等의 慢性衰弱病이 생기는일이만하므로 疲勞는速히恢復하도록 힘쓰지아느면 안되는데 錠劑わかもと에는 구루다치온·비타민B 燐酸鹽이豊富히 含有해잇는故로 쓰시면疲勞와倦怠를一掃하야明日의 勤勞에充分한 體精力을길러서 病에 취말리는弱點을업샙니다

胃酸過多와便秘에

고구마나단것等을 먹은뒤와 空腹時에 가슴이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오목가슴이각갑하고 찌르는듯아푸는것은 胃酸過多症입니다。 便秘는腸의故障에도따르지마는 最近의 硏究로는 胃酸過多症에原因하는것도적지안습니다

便秘하면非常히 氣分이나뿔뿐아니다 腸內에滯溜된 毒素때문에 容色이 까칠해지고 壽命을短縮시킵니다 그러나 下劑는副作用이잇고 習慣이되어야 常用할수가업다는等의 걱정은 錠劑わかもと에는 全然업습니다。 이藥은 衰弱한 胃腸의粘膜과筋肉에 再起의活力을주고胃液의 分泌과 排便運動의 異常을속에서부터健全케하는結果로서 不快한症狀은 一切除去해버리는까닭입니다。

惡阻와胎兒發育에

虛弱한분이 妊娠을하면 惡阻가 생기는것이 病的으로 甚하야 五個月以後에도 고치지안흘경우는 流產、早產의 危險이잇습니다。 惡阻에는 비타민B와 인슈링을大量으로주고 同時에 胃腸을튼튼케하는것이 最良의療法인故로 이意味로 錠劑わかもと가 賞用됩니다

營養方面으로는 비타민B와 인슈링을 多分히含有햇슬뿐아니라 胎兒의成長發育에업서서는 안될카루슘·아미노酸·血을만드는 누구레인·鐵·銅·感氣를 防止하는비타민A·D도적지안습니다。

따라서 妊娠初期부터『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면 惡阻는勿論 脚氣·腎藏炎도防止되여 體重도무겁고 튼튼한애기를 短時間에安產할수가잇습니다。

맛도決코나뿌지안어서 藥을실혀하는분에게도 쉽게 繼續服用되여서 婦人들의 保健藥으로서업지못할 長所입니다

世界へ輸出

胃腸營養 複合ヘーフェ菌剤

錠劑 わかもと
와가모도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三百錠 二十五日分 一圓六十錢
(十歲前後의兒童에게는約五十日分、五歲前後에는百日分)
德用千錠入 五圓 附同用 五十錢

東京市芝公園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二一五五番

漁村發展의重大癌 高利貸金業者跋扈

咸南道에서만負債總額은約千萬圓으로 搾取에呻吟하는五萬餘漁民

【咸興支社發】 함남도에서는 어촌의 근본적 갱생의유일한 방책으로는 현재어촌에서 만연(蔓延)하고잇는 가지가지의 얼을한금융방법의 퇴치에잇다고 하야 금후 이러한 악덕대금업자들의 소탕과 그러한악관례의일소에대하야 신중히 고려하고잇는중이라고한다 ◆이것은 도당국의 집계는아니지만 함남도의 오만여어민들이 쉽머지고잇는 부채는 각어업조합수산조합지부의 대부금이 약 삼백이십만원이나되고 순전히개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고잇는 고리채만도 천백만여원 도합 약일천오백만원의 거액에 달할것은 어김업는것이라고한다 ◆이가운데 어업조합의 부채는 매우저리인 관계로 그다지중대한문제는 될것이 업스나 문제는 개인고리채에 잇는데 이것은 처음내부할때부터 상환할때까지 이중삼중으로 이자에 이자를나리서 어민들이 무리한손해를보게된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기를압두고는 할수업서 그러한손해를보더라도돈을쓰지안흘수업스며 금년과가티 다소라도 흉어의시절만나면 도저히 갑흘도리가 업는것으로서 조금잇든 어획물도 전주에게 박기게된다고한다 연안에는 직접어업자들보다도 이러한 악덕대금업자들이 어기를 압두고는 크게발호하야 어민들을 농단하야 어민들은 도리어 궁경에 빠지게하는 기현상을보인다

가지가지方法으로 搾取에餘念업는實例

現在慣例的인五個貸付制度

【咸興】 개인고리채란것은 파연 어떠한형식으로되여잇는가? 이에대하야 어민들에게서 자세히들어보면 대략아래의 다섯가지방법이잇는데 즉 두전(頭錢) 가게(加計) 금리(金利) 선제(先除) 락가(落價)의명칭으로 통칭되고잇다 첫재두전이란것은 만일 백원을빗는다고하면 먼저봉판례로 이십원내지 삼십원가량식제하야 사실은 팔십오원내지팔십원을 어민들에게 주되 그리자원을 대하야서 삼개월분내지 이개월분을 선제(先除)하는것이다 그리하야 그원금의상환기한에 돈을 받치게되는때에는문제업겟지만은 현품의가격을전주자신이 졸렬하게 평가하야 시세 백원이라고 하드래도 팔십오원 쯤 갑흘셈서 밧는것인데 이것을낙가(落價)라고한다 이것은 처음계약할때의 조건에의하야 행사되는것이다 그다음가게(加計)는 돈이나현품을미처밧지못하는때의 연체(延滯)이자모양으로 밧는어음한제도라고한다 이러한가지가지의 괴상한관습은 거의통예와가티 엿이고잇는데 물론해사(海事)라는소위류기적사업을 상대로 대금업을하는것으로 다소의폭리는 취한다고하드래도 그정도가너무지나친다고하지안흘수업스며 이것은 어촌의중소어민들을 근저로부터 파멸로인도하는 가장축한 길이되지안흘수업게된다

無能한漁業組合

中小業者의救濟無望

이러한문제에대하야 어민의한사람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어촌의 고리대금방법은 벌서오래전부터 내려오는것으로 최근과가튼 금융이 발전된날에 잇서서는 이상한 존재라고하지안흘수업다 이것을 타파하는것이 가장어민갱생의 근본문제라고생각하며 특히 최근의 어업조합은 일개기업단체(企業團體)와가튼 느낌을준다 어업조합에서 수조망(手操網)의 허가를내여서 어업을하야 특정조합원들이 그리익을 배당하는것과가튼것을 보면…좀더 어민들이 중소어민의구제에나아가서 자금등의 융통에 힘썻스면 생각한다 운운

接客業者健康診斷

【新義州】 신의주경찰서 위생계에서는 지난이십사일부터 삼십일까지에공하야 매일오전십시부터 오후사시까지 당지공회당에서 일반접객업자(接客業者)의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데 수진자 예상수는 일천이백여명이며 시행순서는 다음과갓다

二十四日 宿屋, 湯屋
二十五日 料理店, 食肉營業者 理髮營業者
二十六日 카페ー女給, 飲食店女[…]
二十八日 同右
二十九日 飲食店營業者
三十日 同右

勞働饑饉緩化次 "苦力"使用露骨化

【咸北支社發】 요지음북조선지방에는 단천, 공장할것업시 노동력이대단 부족되여잇다 노동부족으로 기관차의 서탄운반도역원이 하여야되고 운송업자의창고에는 화물(荷物)이 나날이싸이게되고잇다 장기간의 노동력기근상태는 마침내 일반업자로하여금 지나인"쿠리"(苦力)사용을요망하게되여 범서국제운수(國際運輸)청진지점에서는 우선만주"쿠리" 일백명 사용을 신청하엿다고전한다 어로미루어 한동안 조선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이유로사용을 금지하고잇던"쿠리"는 다시금 조선내에대[…] 거지에하지안흘가하야일반의 물의가 비등하고잇다

織造工場新築落成

【寧邊】 기업이국영변 의약진보ー 영변읍서부동 청송리조공장은지난봄에하순 공사비 이천여원으로그시축공사에 착수하야 그간 지용와서 그공사가 준공되엿는 그공사를 착착진행중이더니 요 미동공장주 유원경(劉元京)씨는 방금그내용설비에 분망중이며불일간공녀도 다수허모집하야 개업하리라고한다

남의소를팔아먹고

【洪原】 홍원군운학면하리(雲鶴面下里)강서화(姜[…])은 지난이십일장날 시가 팔십여원의소를 팔러왓든바 운학면관양리(雲鶴面觀陽里) 임재식(林在植)(七)과 경운면관덕리(景雲面觀德里)박봉규(朴鳳奎)(七)외두사람이 팔어주다는핑계에넘어가 맛겻든바 전기두명은 보현면직동리(普賢面直洞里) 이형수(李亨洙)(二)에게 수수료팔원을주고 육십원에팔어 주인몰래 돈을 나노아먹고 탄로되야 홍원서에 자펏다는바요새 이런 도적놈이 때도는 모양으로 일반은 주의가필요하다고한다

暗黑化한平壤에서 二次나火光衝天

廿五、六兩日밤에騷動

【平南文社發】 방공연습으로 암흑천지화한 평양에 회명이중선하야 연습아닌 정말소방활동을 전개케한 화재두건─

▲이십오일오후열한시반경 부내 창전리(倉田里)삼십팔번지 주송각(宋昇珏)방에서 발화하야 약 사백원의 손해를보고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공습판제에비하기 위하야 신문지로 전등을가리윗던것에 전열로 발화한까닭이다한다

▲이십륙일오전 두시경 게리(鷄里)에잇는 공설숙박소 (公設宿泊所) 이층에서 발화하여 별로큰손해는업시 삽시경진화하엿는데 숙박인의 담배불에서 발화한듯하다고한다

廿圓紙幣가端緖로 千圓窃盜犯逮捕

事件發生後二個月만에

【平南文社發】 지난팔월십일밤평양부교구정(橋口町)팔번지 고송(高松)씨방에 괴한이 침입하여 금시게와 현금일천이십사원을절취한사건은 범인의 행방이묘연하여 사건은미궁으로 드러가잇던바 도박사건검거로 우연히발키여젓다 ─ 이십사일 평양부교구정(橋口町)팔십칠번지 이시도(李時燾)집에서 도박하는현장을 평양서원이습격하여 수명을 검거하엿는데 그중에한명인 유정(柳町)삼삼번지 전과삼범 임진선(林辰善)(二三)의 품속에 조선에서는드문 이십원지폐를 수매가지고잇스므로 전기 고송모의절도사건에 관련하여 그출처를추궁하여본바 그는 전기범행을자백하엿다고한다

開城勵峴驛間 複線工事着工

【開城】 개성역에서부터 토성(土城)역 도성역에서부터 여현(礪峴)역까지 이르는 상거십칠키로의 경의선 복선 공사는 경성대림조(大林組)에 청부낙찰된바 총공비는 팔십사만원이라한다 그런데 지난이십륙일 오전십일시 전기대림조개성출장소에서는 부내관민유지 얼든판게자를 다수 초대해가지고 사직정 (오정문)(午正門)부근광장에서 복선공사 기공식을 성대히 개최하바잇섯는데 동공사는 금년십이월부터 착수하야 소화십오년 삼월까지에 완료할예정이라한다

照明彈

진남포부에서 선출할평남도회의원 한명에 입후보는 두명이니 그의자는파연누가 차지하게될것인가

◇

그형세마상막하니 단판씨름판에 구경꾼처럼 땀을쥐고 왕이냐? 운이냐? 홍미백퍼센트

◇

아무래도 의자는 하나이라 한명은 면국을먹을것이 사실이니 차라리 『장겐』이란도해서 미리결정합이 여하 (鎭南浦)

內地와朝鮮內에서 生絲三千貫買入

寧邊産組原料難解消

【寧邊】 영변기업해진흥── 영변기업은 연부년 장족의주세로야진 향상하여감은 세인이 숙지하는바로서 근년에와서는 군내에 산재한 대규모공장칠십삼개소 일반기업가 구천여명 일년간 총견직물 생산품 수이십만이라는 대량생산을 보고잇다 그런데전기 기업가에대한일년간소요생사 수량은 몰경──일만관이라는데 그절반즉 오천관은 일반기업자가 자가제사로이용하고잇스며 그남어지 오천관은 기업공장업자처 에서 소화시키는것인데 이 공장업자가 소화시키는 오천관은 이들기업가의 통제기관인 영변산업조합에서공급하여 오든터이다 그러나 금년은 예년에비하야 양잠성적이 다소 흉작이엇다가 고치가격의 폭락관계로 산조당국에서는 잡견공동판매가 예정수량에 달치못한관계로 자연히 원료부족을 면치못하게 되여 기업공장업자들은 매우우수를 띄이고 산조당국의 대책만 기대하고잇는중인데 산조당국에서는 저간 부족생사를 구입보충하는일방 공장업자들의 우울을 해소시키고저 내선각지에 조회중이더니요지음에 와서 내지와 경성방모제사회사에서 부족수량 삼천관을 매입키로 되엿다는데 이로써 공장업자의우울은 해소되리라고한다

西鮮絹織會社도 二千五百貫買入

지난사일에 당지에창립된서조선견직주식회사에서도 대구모제사회사에서 요지음 생사이천오백관을 구입하여왓다는데 이회사의자매격인 다섯군대 견직물직조공장에서도 원료에대하야는 조금도 염려업스리라고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182】

洪碧初 作
金熊超 畵

평산짬 (二三)

서림이의 장모가 합고개에서 증교바탕을 타고 산에 들어와슬때 날은 벌서 어두어서 불들이 키엇섯다

서림이의안해가 어머니 와단 연통을 듯고 버선발로 쪼차나와서

「아이구 어머니 웬일이요」

하고 우는소리하며 달려들어서 어머니를 붓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어머니는 말도못하고 털털 떨기만하얏다 딸을올령거리는 놀란가슴이 적이 가러안즈며 곳 반가옴에 겨윈눈물이 쏘다지고 어머니는 반가움보다도 눈물이 압흘서서 모녀가 손을 맛잡고안저서 울엇다 어머니는 징징거림이지만 딸은 목을 노핫다

서림이는 저녁밥을 먹고 꺽정이사랑에 가서잇다가 장모를 배행하야온 자근손가에게 이야기를 다 듯고 집으로 돌아와다 안해가 울음을 끄티고 한여프로 비켜안즈뒤 장모에게 절하고 장모여페 와안저서

「무슨 급한일이 잇서 치운때 이러케 오셧습니까」

하고 물으니

「숨좀 돌리가지구 차차 이야기합세」

하고 장모는 대답하얏다 서림이의 아들딸 남매가 이때까지 어느구석에들 잇다가 아프로 나와서 저의 외조모에게 절들하얏다

「이때것 어되들 가잇다가 인제와 뵙는다 말이냐」

서림이의 나무라는말을

「어머니학구 말을들구 우시느[…] 잇서요」

하고 그아들이 […] 서림이의 장모가 자기앞에 가튼지며

「이리 갓가이들 좀 오너라」

하고 불러서 남매를 다 아페 안치고

「이거들 좀 봐 아주 몰라보게들 컷구나」

하고 머리들을 씨다듬어주엇다

「수놈아 너 올에 멧살이야」

「열다섯살이요」

「그럼 복네는 열여섯살인가!」

「네」

「외할미 얼굴을 알어 보것듸!」

「그러먼이요」

「나는 너들 몰라보것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시니 까릇알아보지요」

「아이구 고년 소명두하다」

「수놈아 너 글을배우느냐!」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밤낫밧보다구 새루 가르처주진 안쿠 됫글만 일그라구다니다」

「이자식 아버지말슴을 뉘서 그러케 흉하게한다든」

서림이의 장모가 외손자 남매를 다리고 지꺼리는동안에 서림이는

「이런 치운날 팔십노인이 점심두 줍ㅅ오셧다는데 진지를 얼른 해드려야지 그러구 손서방하구 표군문들두 저녁을 먹이게해」

하고 말을 일럿다 서림이의 안해가 바게 나가서 부리는 졸개기집더러 밥을 빼얼게 지어라 국을 고기만히너코 끄려라 이러케 일르기만하고 도로 들어와서 안젓던자리에 안젓다

「어머니 시장하시겟세요」

「배는 고픈줄 몰으겟다만 따뜻한 물한모금 먹엇스면 조켓다」

마침 히로에 언저노흔 숙냉이잇서서 복네가 갓다가 외조모를 주어섯다 복네가 일어설때 수놈이도 일어나서 웃간으로 나갓다 서림이의장모가 더운숙냉을 먹은뒤에 서림이를 보고

「내가 이번오기는 딸보다두 자네를 보러왓네」

하고 오늑절을 말하기시작하얏다

「내자식이 칠월초생에 누이를 하번 차저보구오겟다구 나가더니 석달이 지나두룩 아무 소식이 업서서 우리고부(姑婦)는 노심초사를 하구지내는중에 시월 보름께 낫을흐는 사람하나가 차저와서 자식이 서울 좌포청에 잡혀가서 기막힌 고초를 격는다구 소식을 전해주데 야경버리란것은 버리지 야경버리하는사람을 따러다니다가 잡혀가서[…]구하데 그소릴 들구 어디 집에 가만히 안젓슬수가 잇는가 그래 며누리만 집에두구 나는 곳 서울루 올라와서네 서울을 오니 무슨 별수가 잇나 날마다 좌포청아페 가서 직히구서서 면회를 드나들때 자식을 내되달라구 빌구발라두해보구 자식의얼굴이나마 한번 보게해달라구 애걸두해보앗네 그러나 무슨 소용잇서 지천구만바더지 지천구밧인가 맥두 여러번 어더맛구 발길에두 여러번 거더채엿네 내가 그욕을 보면서두 흐시를 바라구 이십여일동안 한결가티 포청아페 가서 살엇네 포도군사 하나가 나를 불상하게보앗든지 비밀이란두 고맙게해주데그려 그군사에게 간(間)속의 압부를 더러 어더듯는데 뭉을때마다 뭉오섯하다구 말하더니 육칠일전에 비로소 뭉이섯치웃한것을 이때것 소겨왓다구 말을하데 벼이 말이아니라네 간속에서 벼이 말이나면 죽는사람이아니겟나 내가 달은자식이잇나 저하나 밋구살나가 팔십지년에 그꼴을볼줄을 엇더케 의논하면 혹시 무슨도리가잇슬까하구 허위단심하구 와네」

장모가 질금질금하며 목메인 소리로 말하는것을 서림이는 뭇까지 다 듯고나서

「진작 내게루 오서더면 조홧지요」

하고 장모의 늣게오것을 탓하얏나

懸賞論文募集

課題「朝鮮に於ける發明の振興方策」

募集の趣旨

發明は文化の源泉であつて國力の消長に至大の影響を有することは論を俟たぬ所である。殊に現下の時局は國防の充實に國民生活の安定に發明考案の興隆に期待するところ極めて多大なるものがある。

社團法人帝國發明協會は創立以來三十餘年發明思想の普及と發明の助長並に發明家の援助とに全力を傾倒し我が國唯一の發明獎勵機關として活躍を續けてゐる其の主なる事業は左の通りである

一、工業所有權に關する制度の完備を圖ること
一、工業所有權に關する原理の攻究及事實の調査
一、工業所有權の發達保護に付功績ある者を表彰すること
一、發明、實用新案及意匠の案出、出願及實施並商標の出願を幇助すること
一、發明、實用新案、意匠及商標の讓渡、實入の仲介並紛議の調停又は仲裁すること
一、發明、實用新案、意匠及商標の懸賞募集を爲し又は依頼に應じ其の事務を取扱ふこと
一、發明及實用新案の効果を證明すること
一、發明に關する刊行物の發行及講演會座談會の開催
一、發明に關する博覽會、共進會又は展覽會開催の場合に於ける出品事務の取扱
一、發明に關する研究所を設くること
一、發明に關する見本の製作又は其試驗に對し助成を爲すこと等

而して現在內地に於ける支部所在地は二十數府縣に上り各本部の事業を分掌しこれが相當の實績を擧げてゐる

當支部は昨年六月の創立に係り朝鮮に於ける發明の振興に微力を致しつつあるが半島の發明界は未だ甚だ幼稚にして其の發達はこれを將來に期待せねばならぬ、惟ふに朝鮮の産業は異常なる發達を遂げ教育の進歩亦顯著なるものあるによつて觀るも發明界の振興亦期して待つべきものありと確信する。[…]其の指導獎勵亦之に即する[…]の方途を講ぜねばならぬと思ふ、これ今回この企てを爲すに至つた所以である。

規定

一、要領 朝鮮に於ける發明の振興は如何にせば期し得らるるや其の方策を一體的に記述すること
一、賞金 一等一篇金三百圓 二等二篇金百圓宛 三等三篇金五十圓宛
一、締切 昭和十四年一月二十五日
一、發表 昭和十四年二月十五日
一、審査員 […]

京城 社團法人 帝國發明協會朝鮮支部

우수한치림약
리베ー루
염려말고、의심말고 꼭한번시용하시오
五日分 貳円五十錢
大阪市東區南久太郞町 竹村製藥所
各藥店에잇슴

물가원진료 染料 藥品 愛國公司

肺病全快法

사람이肺病에 걸렷다하면死刑宣告나바든것처럼 悲觀해서、藥과器械만으로 病을治療하려고한다 그것을믿기로 無効한藥과器械를 扱賣하기도하고 여러가지廣告로 弄絡하는商人이만라 詐欺師가 아모리 거짓말을하여도、藥장사가아모리 甘言利說을 내거러도 속어서는 안됩니다 結核菌을죽여서 肺病을治療하는藥과 注射와 器械는 아즉 世界어테서도 發見되지못하엿습니다

肺病은治療된다

肺病은 다만自然으로도라감으로써 治療됩니다。若草가 맹動하는土壤、淸澄한물、淸潔한空氣골고루비초이는陽光、自然의草根木皮거기에는 肺病者를救할偉大한 慈愛의손이 펼처잇습니다。

그릇된養生法

治療할수잇는肺病이 왜안낫는가? 그것은 貴下의養生法이 잘못되엿기때문입니다。貴下는 日光療法을 잘못하고 잇지안습니까、自然을 防害하는藥과 器械를쓰고잇지안습니까 물은、空氣는…………。

正當한療法

肺病으로 알는이는 只今곳

「朝鮮日報で見た本下さい」라고 써서葉書로 左記의寺로 보내주시요。釋迦님의金言을 基礎로해서止當한治療法을 가르친、松永佛骨師著『治療の原理』와藥草療法『光明のあなたへ』의二冊을…………

無料送呈

다합니다

빨리 이 가르침을바더 알는몸에생각만해도 그리운 元氣잇는 옛날도 回復되여주십시요

大阪府布施市 功山 惠林寺

法律을모르므로
당치안은悲劇을惹起
女에게잇는法律相

最近東京을비롯하야 各地의裁判所에서보면 떠그나 增加되는訴訟事件이눈에띄인다。當然이 이길것을 法律을 모름으로해서 敗訴를하야 울고잇는사람이퍽만타 그中에도第一만흔것이 金錢의貸借、家屋의貸借 商業去來로 發生하는이러한事件이다。하지안흔일이크게버러저서 裁判所에 訴訟을끼치다 世上에는 까딱잘못되면 事件을이르키는問題는 往往히잇는고로 平常時에法律을아러두어서 事件을이르키거든 곳應用하면 퍽便利하다。

最近 東京市本石川區大塚町三十七番地 大東社에서 「難問解決 日本法律相談」 이라는 알기쉬운 法律書를發表하엿는데 一般素人에게는 絶對의 相談相對이다。同書는 從來와 어려운 法律書와달러서 實際問題를 取扱한것으로 金錢의 貸借는勿論、民事、商法、土地、家屋、動產、相續、戶籍等의實際問題를 머리를 쓰지안코 解決하는 至極便利한것으로 定價一圓五十錢인것을法律의 民衆化라는意味로 단一圓으로 頒布하고잇다。希望者는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着本後도조타고。

美枝子の兄
十一月廿八日封切
松竹蒲田大船特作品
戰線の恩師 名匠小津監督へ 捧ぐ最高の秀作
原 研吉 監督
三原 純・槇美佐子 齊藤達雄・栗山正雄 水戶光子・轟夕起子
貧しくとも美しい兄妹愛とはかなきインテリゲンチャの悲哀を原研吉が鋭いタッチで描く心境篇

花嫁は紅を拭く
ジヨン・クロフォード フランチヨツト・トーン ロバ ート・ヤング ドロシイ・アズナア女史
若き女性の素晴らしい夢を乘せて風光明媚なチロル山麓に繰り展げられた眞紅の戀物語を纖細なタッチで女心の奧を溫かくさぐるメトロ映畫の名篇!
MGM特作

明治座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一円

文學讀本發賣中

여드름 죽은깨 기미빼고 色白用에
アモンパパヤ
パパヤ洗粉
一號一圓五十錢 二號(徳用)二圓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004173

꼿을비웃는레ー도의화장미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크림

비단결가치곱고
생기잇는健康肌로!

레ー도크림의 優秀한效果。
一、살결거츠러지는것을防止하며
二、여드름뽀드지를一掃하고
三、魅力이넘치는健康肌를맨들며
四、粉바르기前에조코
五、面刀에거치러진것을막는다

學生페지

近吟二題

開運佛專 朴一淵

失題

빨안 情熱을 吐하는 입새하나!
노란 情熱을 吐하는 입새하나!
내 검푸른 情熱은
그 어디메다 吐하야 좋가나。

아롱진 三모퉁이에는
젊은이 둘이 어깨를 겻주고
아마도 이 한낫을 주름잡거늘
北에서 날려온 비들기 하나여!
너는
누구의 傳統을 이으고
이땅의 젊은이 가슴속으로 기여드느뇨。

하나의 미듬과
하나의 希望도 업는 젊은이―
無聊히 이하로날을 보내며
絶望속에서
그래도 그무엇을 찻겟다고 허덕이느냐。

丹楓

可憐한 젊은이여!
내 多恨의 情熱을 吐하는氣焰을
그대는 한番이라도
뜻두고 尋訪것 마저주엇느냐?。

내 한가지를 꺽거 들고서
그 무엇을 차저보려
이리 저리 흘러보는 내마음。

맛치 情熱에 불붓든
遊子의 마음씨가 너라면
아마도 이가지를 드른 이몸은
情에굶주린 이땅의 젊은詩人일러라。

너는 가을을 꾸며놋는 魔術師랄가!
아니 그러치 안흐면
妖艶에 밀치는 紅潮이러니
부디 사나이의마음을 哀愁케마라。

나는 가을黃昏을 등지고
너의얼굴에다 고이 네입을대고
참된날을 드러보려 달래여 보노라。

＝小論文＝

現代學生論

普專 孫錫泰

學生이란 名目下의 한사람으로 그들이 取하고잇는 現實的態度 即 學生間에 흐르고잇는 一般的思潮를 極히 端的으로一瞥코저하다。그럼으로 過去二十年間의 情熱的이던 學生氣質이며 知的慾求에서 일어난 啓蒙의 烽火를 들고 先驅하던學生을 論述하려함도 아니요, 아프로의 學徒의 進路를考察하려함도 아니다。오직 近年 急激히 轉換한 世代의 潮流――세찬波浪이이땅을 휩스러갈제 여기에 照映된學生――여기追從하고잇는學生의心的反映이 어떠한것인가를 論述하여보려다。概括的으로 三流의 思潮를 發見할수잇스니 그하나가 어느時代 어느場所를 莫論하고 處하야 無爲度日하는 徒輩이다。

이型의 人間이 가장人類社會의 地盤이되어 잇는것과 마찬가지로 今日學徒中에도多數를차지하고잇다。모든 群衆이 所持한 樂觀的慾望을 表白하는部類다。이들은 抑制할수업는 情熱도 큰 慾望도 渴想도 知的情緖의 屈曲도 업는 學生이다。이 德으로 그들은 그들의 周圍의 甚한 矛盾도 合理도 感受치못하고 다만 肉感的慾望에서 사는 單純한情性의所有者、過히말하면 低能兒이다。이들은 고마운歷史的 禮讚으로 父兄네의 物質的恩澤을입고 아모런意識업는 學生生活을 營爲하야가며잇다。이러한 學生生活을 經過한後 社會的指導格이될 그들이 行할바가 얼마나 可憐한것인가는 明若觀火 한것이다。

다음으로 이들만 못지안케情落한學生層이다。그들은『學生』을등진 商品化된 學生이다。그들의 知的性能이 功利的인데固定化한 좀더비싼 商品에 지나지안는 現下產業豫備軍이다。그들의知性은 眞理把握 그것보다 우선利害打索이 先行한다。眞理把握도 그들에게利로울때 고마운것이나 어느때나 眞理라는것은 科學的探求對象 이라는것은 그들의利點에 背反한것이니만큼 學徒의任務가 여기서도 去勢되고마는것이다。그나마그들은 自己네의現實滿足을 乃至는 그들이말하는不可抗力에 處身코잇슴을 淺薄한先入見으로 固執하는데는 귀탈만한 自尊心을 固執하는때는무던한것이엇다。여기서 辨法이그들의武器요 逃避가所謂產되며 偽詭과 良心的知識人의 欺騙을 꾀하는것이다。

進步를 모르는 學生 批判을 끄리는學生 情熱을엿볼수업는學生 生活처럼 釜釜하고 살엇스면서 석어진것은 업슬것이다。이部類의 人間은 士人만이 黑奴만이 所持한 奴隸根性의 發露이다 商品化된 自己를 發見하드래도 깨끗이 自己認識의謬謬를 淸算치못하고 眼前에 어마어마히 華麗한 現實의 魅力에서 培養된 習性의未練에 痲痺되고마는것이다 이러한學生이 大部分이라는것 特히自然科學專攻하는 學生이 이러하다는것을 觀察할수잇다。이들은『삶』을고이고이營爲하는데는 가장영이하며 物質的給與下에서는 누구보다 幸福의 女神노릇을하고잇다 아무튼 이러한 學生層이 現下學生의 風潮가되어잇는것이다。여기서 이것은 全知識人의問題이며, 혹은知識과眞理와의 問題이며, 現下學生의 問題일뿐더러 次代의問題일것이다。

마즈막으로 小數이나마 어느 時代 어느場所에도 스스로 迹運의 그늘속에서 끈질줄모르는 探求慾을가진 學生層이다 이들은 知識人의 歷史的任務를 遂行하는 眞實한 學徒들이다。그들은 그들이 處하고잇는 學生의 任務를 自覺하며 眞摯한態度로『배움에사는』學徒노릇을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들은 行動과 知性의 懷疑우에서, 가장 쓰린 處身의 苦憫을맛보고잇는 셈이다。

여기에 靜觀이니, 冷靜한處身法이니생기며, 때로는 甚한刺戟을 利用하야 한때의精神에 痲痺를 圖謀하는수도잇다。어려운 難에逢하면 自己增悪, 自己分裂의 낭어덕에서 데카단니즘에墮落되기도한다。

結局以上의 學生差別은 그들의知性에 依存하는것이다 學生의 意識속에 그들의周圍의縮圖가 그려지는것이다――그縮圖는 周圍의現實과 各人의 意識이感受한 印象間에는 習性과感性이 混合되는것이니 이各人의知性은 折光差의指數와도 가튼것이다 即外光은 그知性의差에 依하야 屈折하는것이니깐 그들의意識은 어에依하야 進步的일수도잇고 退步的일수도잇는것을 우려는 잘 알고잇다。

가을밤―詩

京保 黃헌수

芭蕉 넙파리에 머언 銀河가 어리우고
따아리야 靑楚하게 鄕愁에 늙엇다
아! 고은 밤이다
水晶처럼 透明한 밤이다。

蟋蟀이 눈물도업는 울음!
아무 憤慨도 意欲도 없이
지러가는 가을밤의 靜寂을 깨온다。

흰 달아래 혼자서 野菊을따는 어덕에는
東海岸 섬나라에 수달피갓은 외롬이 자랏다
아! 거러기떼를 나의寢室로 불느고십픈 밤이다。

―一九三八年 늣가을―

洞窟

法政大學法文學部 金章鉉

―다시S에게―

봄이오고 여름이오고
또오고 또가도……
여기엔 응산한바람만잇다。
그리고―
太陽을 咀呪하는 密謀만잇다

×

뚝! 뚝!
千尺、地窖의暗黑을 내리돌는
雫滴聲!
어디서 어디로가는지
그는 永遠한時間을 색이며잇다。

×

「하나, 둘, 셋.……
아!『鷄龍의밭』은 언제나생길까?」

學生模擬新聞

世專篇

某教授臨床講義

獅子岩을 저 木覓山에 맛기어 鬱石에세운 국거한 우리學校 ―(校歌一節)―

學生論說

「現代文學」과― 病理의世界

＝金汝鎬＝

近來의 東洋이나흔 最大의文豪라고 앙드레, 지드가 評한 魯迅은本是自己나라의 病弱한民衆의『肉』體를 건지기爲하야 日本으로 醫學을 工夫하려왓던 사람이다。그러나 病든 支那를 根本的으로 救出하기爲하야서는 그肉體보다도 여러가지 그릇된 思想으로 말미아마、重하게病드러버린 民族精神부터、먼저 곤치지안허서는 안되겟다고 깨닷자 敢然히 醫學을 버리고 故國으로도라가 文學의 메쓰를들고 支那文化運動을 爲하야 싸우기始作하엿다는것이다 나는 이러한 魯迅의行動속에서 至極히 良心的인 人間의 한개의 偉價한 敎訓을 發見하는것이지만 그와는 또 다른 側面에서 醫學과 文學의 어떤 相關對立的인 性을 生覺해보지안흘수업다 그것은 魯迅의醫學이나 文學을 各各 가튼 祖國을爲하야 利用하려고 하엿스면서도『現』代의 支那情勢에 비추어 醫學의 機能과 文學의 性能을 比較檢討해본結果 드디어 文學을 擇하여가지고 도라갓다는事實이 醫學과文學의 關係속에서 特히 다음과가티 重要한 몃가지 點을 端的으로發表하고잇기때문이다

即 첫재로 醫學이나 文學은 다른 여러가지 文化部門의 學問들과더부러 根據的으로는 어디까지나 人生主義에게때문에 廣範한 意味에서는 모두 人類의幸福을 圖謀한다는 共同目的을 가질수잇다는것이요 둘재로 醫學은 直接으로 個人의肉體를對象으로하야 그健康을 꾀하는것으로 人類의 幸福을 增進시키는것이고 文學은 그獨特한 藝術性을 가지고 間接으로 民族的인 或은世界的인 理想과情緖에 作用하야 그人間社會의 精神文化를 高揚하는것으로 各個人에게 어르기까지 幸福어미치도록 하는것이라는 所謂 方法論的 差異가 兩者의對象 世界를 決定的으로 規定짓고 잇다는것이요 셋재로는 醫學의 實證主義나 文學의 政治主義가 다거티個人과社會의 或은「肉」體와精神의 病的世界를除去하기爲하야 存在한다는데서 거의近似한것을 發見하나 그方式에잇서서 前者가 歸納法的인데對하야 後者가 演繹法的이라는 全然對立되는 點도 엿볼수잇는것이다。그럼으로 大槪 이와가튼 對立性과 共通性을 가지고 現代文學과 醫學과의 特殊的인 關係를 考察하야 볼때 第一먼저 나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은人間과 社會에關한兩者의病理的關係性일것이다。

이런意味에서 人間의 生活을 詳細히 分析檢討하야 그것의 病的變化라던가 或은 病的狀態에서 正常으로 도라오고잇는 移動의 機微에 關하야 그因果的 經過를 밝히면서 學習하고 實驗하고 記錄할려고하는 醫學의 病理的 世界가 現代文學에게 얼마나만흔 敎訓과 示唆를 提供하고잇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가튼理由에서 이와反對의事實이 成立할수잇슴은 勿論이다。……(一一、一六)

校內消息

◇吳校長께서는內艱을當하시여還甲祝賀會는延期

◇去十一月八日 文部省醫學官來校、米國醫學系統의病院施設과學校制度에서 조흔點을만히發見햇다고

◇十一月二十五日은 우리學校의 老大校長先生의 還甲이시라고 校友會、同窓會에서는 아울러祝賀準備에奔忙中

◇十一月二十日 世專合唱隊 라디오放送하야大成功

◇來十一月上旬頃 第二回校內學生寫眞展覽會가 本校카메라部主催下에 開催될豫定

◇崔永泰先生 北支防疫團에 參加하야 派遣되엿던바 一時歸京中

世專頌

우리學校

李達浩

京城驛, 이마에걸린 電氣時計는 여덟인다。아침에도, 疲困을 싯고, 依然히 허덕인다。이電車 저電車에서 뛰어내리는 병아리들! 아름다운병아리들! 快活에넘친 醫學徒들은 南山무룹에 안긴 우리 學園에 뛰어든다。두눈과두눈이 마조칠때의微笑, 그리고 거울가티 번적이는, 눈瞳子에는 暗暗裡에 飛躍의希望이빗나며, 探求와追求의銳氣가 북바치는것이다。그아페는 다만 理想이 가로노혀잇슬뿐이다。爲先, 대들보가크고 컴컴하기에 有名한 質朴한『홀』古典的色彩、濃厚한 우리大講堂에 一八○名은 고요한『힘』에이어, 거룩하고 神聖한 기도에 心身이 더욱純潔하여진다。좀더 高尙하고 참되고 아름다움을 차즈려고 망서린다。洋의東西를 莫論하고、『럭닝』을 專門으로한 敎育機關에는 情緖敎育의缺乏을 痛感하는것은 一般周知의 事實이다。그러나 이아침時間은 唯一한 이方面의 講義時間이라하여도 過言이 아니겟다。이땅에 有名한 有志諸氏들의說敎로부터 여러敎授들의講話는 참자랑할만한 有意義한 時間이라할수잇겟다。特別히 每週木曜日에는『音樂鑑賞』로 音樂家諸氏들의 노래를 鑑賞하는것이다。쇠떵어리가티굿고 차고 무거운 學問에시달려 極度로 緊張된 神經은 그부드러운『멜로디』에 全혀 柔和하여지고야만다。

× ×

다음은 講義가始作된다。自動氣絶하는듯한、電車의원철과 自動車怒號하는소래! 第一講堂의空氣는 이雜沓한 騷音波에 充滿되엿거늘 들리는것은 다만敎授들의 名言名句뿐이다。五六月三伏부터 嚴冬雪寒을通하야 꼭다처진 이房에서 敎授의口腔으로 쏘다저흘으는 獨語、英語、라틴語를 한마듸도 노치지안코 超速度로 붓을휘둘은다。한時間、이것을繼續하는새에 心臟鼓動은頻繁하여지고、呼吸數는 더욱增加하여 때때로 기나긴 한숨조차생긴다。그러나 無情하고 冷靜한敎授는 依然泰然할것이다。

아! 絶望과虛無의『심볼』인 그우름소래는 드디어 터지고야말엇다 剖檢室에서 쏘다지는 悲鳴은 人生의無常을 너무도 率直하게 告白하고잇다。瞬時間도 弛緩을 不許하는講義의每秒每秒사이에도 無意識的으로 人生의行方을 探索할려고 애써본다。結局、人間은 元氣로生겨서、또元素에 가버리는、一定한時間에만 나타나는 生活現象일까? 그러나 萬物의靈長인 人間은 좀더 永遠性엇고 高尙한 무엇이엇슴직하다。

落葉

宋全武

거문 때로자 뒤뜰에서, 말엇시 기퍼간다。
찬바람이 어답휠미례 숨이여든다
부서진 廢墟을 주서모흐는 애처러운 눈가울이다 落葉이운다。
뭉흘여려라 나무니플부르자
나무가지에 속은 옛어야기를 시키자
사랑을 속삭어엿던 꿈가는密語에
야곱의 영낭대가는 神話를듯자
가울의 열매를 자랑햇슬 그때를 붓들자
그리워 더듬는 옛꿈을 들이자
꿈가튼 어적을 만나 가라 더듬든 그옛어야기엔
애꾸진 자울만을 원망할레져
호화로웟든 그햇볕
돌담미례 숨여들든 처량한노래
한귀에 흘려젓던 버레의울음
지금 돌담을 더듬무며 귀를저우린다
紅菊의 香氣가 숨여서 숨여들면
애타과 몸부림에 바서쳐지리며
너는 오늘도 울면서 자울을원망하다
들지안는 잠에 꿈을청하며 눈물을머음는다。

(十一月九日)

世專유모어

診斷聯盟

요새 世上이 하도 까다로워지니까 病院에오는 患者들까지 깜찍하야저서 醫師의診斷을좀처럼信用하지안코 이病院 저病院 도라다니며 醫師의實力을 試驗하려드는 사람이만타。여기에對해서 우리세부란스卒業生中의 어떤분들은 萬若 가튼土地에서 開業을하게되면 診斷聯盟이라는것을 組織하야 가지고그러한患者의診斷을 서로 電話로 通知하야 自己네의診斷을統一하는것으로 彼此 조흔成績을 내고잇다는속인질가튼 事實이잇다。

名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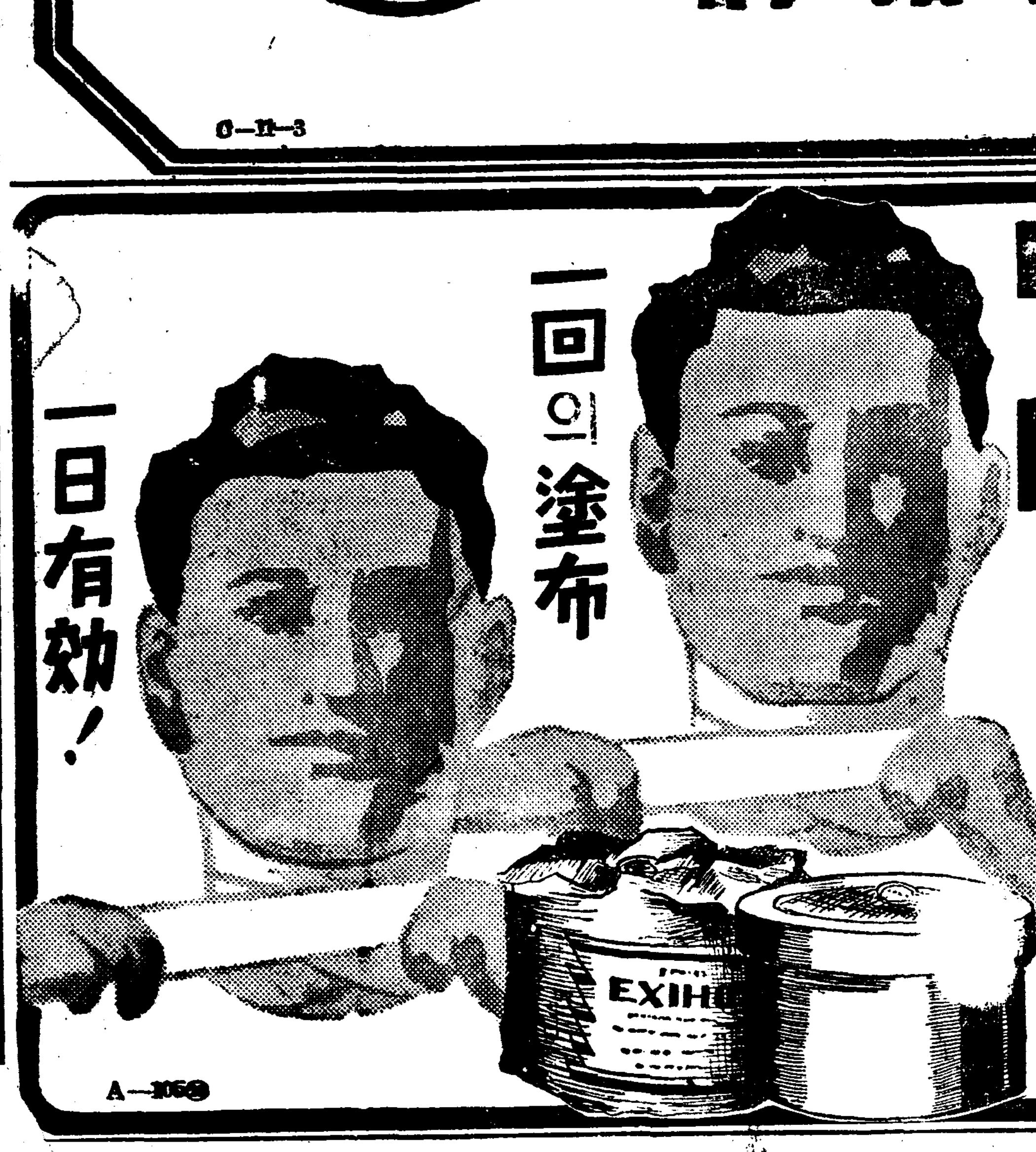
試驗工夫하기에 똥줄이 빠지는學生이 『外科는 範圍가 너머 넓어서 工夫를 못하겟는데 範圍를 좀 좁혀주서요』하닛가 外科敎授 對答하야 『이담에 病도 좁아서생겨야 좀(診)래요?』하고 反問하셧다。

祈禱

시골어떤양반이 學校求景을 왓다가 마츰 組織學室에서 學生들이 모다 顯微鏡을 드려다보고앗는것을보고 祈禱를 드리는줄알고 自己도暫間 문에서서 머리를 숙엿다고한다 아―1號!(某五生)

胃腸·肺
肋膜藥
戰 전 勝 승 丸 환
登錄商標濟 明治四十年四月二十三日
戰勝丸의主治効能
胃病、腸病、腸胃加答兒、溜飮、消化不良、健胃、强壯、胃弱、胃痛、痲氣、嘔吐、腹痛、水傷、後傷、肺結核、肺尖加答兒、肋膜炎、氣管支炎、氣管支加答兒、咳嗽、虫齒
定價表
八十粒入 金壹圓
百五十粒入 金貳圓
三百八十粒入 金參圓
五百五十粒入 金五圓
千二百粒入 金拾圓
配給所
京城府黃金町六ノ二九
本舖
浪速製藥株式會社
大阪市天王寺區上本町八丁目
電話天王寺二七二八番
振替大阪四八二六二番

三共 SAN·KYO
感冒·氣管枝カタル
肺結核·肋膜炎諸症に
ブロチン (부로친)
ブロチン은廿餘年恒常第一位의聲價保持한鎭咳祛痰劑로써祛痰과同時에鎭咳의奏効하며不快味업고服用容易副作用업고應用安全。獨自의作用에依한獨特한効果를줍니다。
(說明書進呈)
東京·日本橋·室町 三共株式會社
0—11—3



濕布에 エキホス (에키호스)
一回의塗布
一日有効!
感冒、肺炎
氣管支炎·扁桃腺炎
中耳炎·百日咳
神經痛·로이마치스
打撲痛·捻挫·齒痛
火傷等
어느거나エキホス의 好適症으로서 エキホス를塗布하면 特有의鎭痛과 保溫의 兩作用에依하야 速히炎症을업새고 疼痛을輕減하며 熱을下降시켜서 자못 爽快한感을줍니다 用法簡便하야 一回의塗布로 長時間効力을 持續함。
注意
近時外觀、包裝等エキホス에類似한製品多數잇사오니購入時에는반드시エキホス라고指名해주십시요。
包裝 一○○瓦 五○○瓦 二五○瓦 二瓩
信用잇는藥店은エキホス를販賣함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株式會社 塩野義商店
製造元 二巴合名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A—1058